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58
2010.04.28
gonggam.korea.kr
勞使不二가 국가경쟁력
〈노사불이〉
20년 대역사 새만금 방조제 준공
구제역 확산 철저히 막는다
자전거 타고 떠나는 문화재 여행
KIMYM.COM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녹색성장의 동반자

투르 드 코리아 2010 개막!

4월 22일 투르 드 코리아 2010 대회가 녹색 선진국의 꿈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대 강을 지나 친환경 복합도시 새만금을 달려 광화문까지
무연료 무공해의 초록빛 레이스로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해 집니다

양양
춘천
서울
광화문광장Final
영주
충주
당진
구미
투르 드 코리아 2010
경주코스 안내
군산
새만금 방조제
여수
강진
제주
제주도 해안도로

투르 드 코리아2010 대회는 **제주**를 시작으로
5월 2일 광화문까지 대한민국을 달립니다.

노사는 합작 투자자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의 노사관계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 기술, 사회의 급속한 변천과 노동법 개정은 기존의 노사 생태계를 뒤흔들어놓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노동세계는 무한경쟁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의 실시도 눈앞에 두고 있다. 실로 우리의 노사관계는 지각변동기 앞에서 산업평화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적극 펼쳐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노사관계의 발전단계는 개별종속–대립투쟁–갈등협력–사업동반 공동체 등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의 노사관계는 2단계인 '대립투쟁의 노사관계'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사관계, 양보와 희생을 외면하는 노사관계, 상생과 고통분담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사관계란 점이다. 이는 기업성장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다. 우리의 노사관계도 4단계인 '사업동반 공동체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에는 '이해 공통적인' 측면과 '이해 대립적인' 관계가 동시에 공존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사관계를 '갈등 동반자 관계'로 규정짓기도 한다. 세계는 자본과 노동이 융합된 공동체 기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선진 산업사회에서는 1980년대부터 노사관계를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이나 노동 상품의 거래관계로 보는 '기계론적' 패러다임에서, 가치창출을 실현하는 자본과 노동의 사업 공동체인 '유기체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바라보기 시작했다. 노사가 합작투자자로서 사업 공동체, 소위 '소셜 조인트 벤처(Social Joint Venture)'의 이념과 행동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도 갈등과 투쟁관계에서 벗어나 사업동반 공동체 관계로 변신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업 동반자로서 노사관계를 기대하기 위해 경영자는 노동을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합작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근로자에 대한 보상도 노동 상품의 대가로서,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투자 동반자로서 보는 눈이 필요하며,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정책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은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또 경영 객체로서의 노동이 아닌 주체로서의 노동 참여와 혁신이 적극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람을 주체로 삼는 경영, 사람을 중시하고 이들의 유기적 협동관계를 중시하는 경영이 추구돼야 한다. 동시에 노동도 한시바삐 이념적 투쟁에서 벗어나 사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중시하고, 작업장 혁신과 경영 혁신에 동참함으로써 경영의 가치창출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또한 사업 동반자적 공동체 노사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이 있는 국가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여기에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노사 관행을 비롯해 공동체 노사문화 창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개발, 공공 부문의 노사 선진화,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제도 정착화 등 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사관계는 한 나라의 사회적 기반구조(Social Infrastructure)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예외 없이 국가발전 모델에 노사관계 발전전략을 적극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G

Weekly
2010.04.28
No.58(통권 159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오월동주(吳越同舟) No!
노사동주(勞使同舟) Yes!
출렁대는 글로벌 격랑을 헤쳐나가려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는 수밖에 없다.
노사가 상생을 도모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지긋지긋한 갈등과 분열의 고리를
끊고 윈윈의 지혜를 짜내야 할
긴박한 상황이다.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 04. 2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勞랑使랑 선진국으로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누구보다 빨리 극복해가고 있지만,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위기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의 일터와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勞)와 사(使)의 양보와 고통분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양보와 고통분담은 비단 노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나눔과 양보가 더욱 활성화될 때 노사관계 선진화, 선진일류국가 진입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57호(4월 21일자) 기획특집 '콘텐츠·미디어·3D로 제2의 IT 신화를!'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제2의 IT 신화, 꼭 실현되기를…"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데는 정보기술(IT) 산업의 부흥이 큰 몫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공조와 지원 속에서 대기업부터 1인 창조기업까지 산업구조에 역동성을 불어넣음으로써 IT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제2의 IT 신화를 창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함께 여러 지원책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_전경욱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학교에서 〈Weekly 공감〉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획특집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해외 강대국과 겨뤄 이기는 길은 IT 산업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IT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훌륭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_강채정

"도대체 미디어가 어디까지 변화할까요. 이제 방 안에서 리모컨만 눌러대면서 TV를 쳐다보는 건 궁상맞은 일로 취급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미디어 생태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음을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TV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구입하는,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가 여러 미디어를 흡수해 또 다른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세상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오감 만족'의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가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을 보유한 한국이 세계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날을 기대하며…."_김병국

"콘텐츠 품질과 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야"

'8천억 투입, 3D 영상산업 육성' 기사를 보면서 이제는 전략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을 찾아가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D 산업이 아직 세계적으로 확산되진 않았으니 우리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콘텐츠와 기술로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콘텐츠의 품질과 미디어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3D 영상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_우점순

57호 중점기획 '우리는 지금 환경선진국으로 간다'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나날이 실감하게 되는 요즘, 지구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참으로 대견하네요. 세계가 우러러보는 환경선진국을 꿈꾸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대한민국의 질주. 뜨거운 박수로 응원합니다."_김세미

콘텐츠 산업으로 청년취업난 푼다

'세계 녹색뉴딜' 그 중심에 서다

알립니다

내 개인정보 아이핀으로 보호하세요

아이핀(i-PIN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형태로 돼 있다.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이나 실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입력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아이핀 전환 캠페인'이 5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캠페인은 이용자들이 회원 가입 시 기존에 제공한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 NHN과 같은 대형 포털과 쇼핑몰 등 13개 웹사이트와 함께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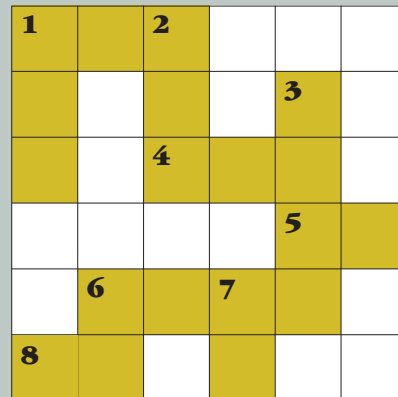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이핀으로 전환하려는 웹사이트를 선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아이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5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없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크워크정책국 개인정보 보호윤리과
Tel **02-750-2770**
아이핀 전환 캠페인 홈페이지
www.i-pin.kr

생활정책기록물 찾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과거 국민생활정책을 통한 생활상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국민생활정책 민간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1960~70년대 전 국민이 동참한 새마을운동, 가족계획, 국산품 애용운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부 정책 관련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기록물은 6월 1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국제기록문화 전시회'에 전시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 | 일기, 수기, 앨범 등 생활정책과 관련된 기록물
접수 기간 | 5월 14일까지
공모 방법 | 신청서를 대상 기록물의 사본과 함께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주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31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특수기록관리과
전자우편 | dawn0320@mopas.go.kr
※ 신청서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시상 내역 |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 1명, 우수상(국가기록원장상) 5명 등 총 66명에게 총 1백80만원 상당의 부상 수여
수상작 발표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통해 5월 28일 발표 예정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관리과 Tel **031-750-2391 archives.go.kr**

공감 퍼즐

빈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5월 5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호텔이나 극장, 공항 등지에서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곳이나 만남의 장소. 휴게실.
4. 서울 성북동에 있는 아름다운 절이죠. 얼마 전 '무소유'를 실천하고 입적하신 법정 스님의 49재 중 6재가 이곳에서 봉헌되기도 했습니다.
5. 땅속에 있는 가스, 마그마 따위가 지각의 터진 틈을 통해 지표로 분출되는 산. 얼마 전 아이슬란드의 이것 폭발로 검은 재가 하늘을 덮어 유럽의 항공기 운행이 마비되는 교통대란을 겪었죠.
6. 마음이나 뜻이 서로 맞음. "두 사람은 OOOO하여 그 일을 하루 만에 끝냈다."
8. 곁에서 성원함. 또는 호응하여 도와줌. 힘을 보태줌. "노사가 화합하는 데 국민의 OO이 필요하다."

세 로

1. "지난 4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 OOO · 인터넷 연설을 통해 국군의 통수권자이며 최고사령관으로서 젊은 병사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안타깝게 보내야 했던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고 이창기 원사부터 한 명 한 명 순국 장병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피 같은 우리의 자식이요 형제라는 것을 느꼈다."
2.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첩경.
3.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화목하게 어울리는 것.
6. 국회나 지방 의회와 같은 합의체(合議體)의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가진 사람. 국회OO, 시OO.
7. 물 따위가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음. 사람의 말이나 태도, 펼쳐진 상황 따위가 분명함. 미래의 전망이 예측 가능하게 분명함.

<Weekly 공감> 56호 (4월 14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1 원더풀 **3** 계백 **5** 국제사회 **8** 전라도 **9** 팬터마임
세로 1 원조국 **2** 세계 **4** 백령도 **6** 제곱 **7** 회전목마

<Weekly 공감> 56호 '공감퍼즐' 당첨자
김용호 · 충남 서산시 팔봉면
심재호 · 울산 북구 호계동
이수진 · 서울 은평구 갈현1동
이혜란 · 경기 의정부시 가능1동
장예은 · 인천 남동구 간석3동

이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만드는 지면입니다. 국민들이 호소한 고충이 실사(實査)를 거쳐 해결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국민 고충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국번 없이 1588-1517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고충 해결사

미혼모가 꿈꾸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해마다 3천7백여 명의 한국 출신 해외 입양아가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친부모를 찾는 데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8년 봄, 가까스로 부모를 만난 해외 입양아들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왔다. 그들은 친부모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입양기관과 입양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해보니 과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부모가 아닌 제3자에 의해 해외로 보내지거나 다른 아이를 대신해 입양된 이들이 상당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입양서류가 잘못돼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나 이미 20~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들의 잘못된 운명을 되돌릴 방법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전쟁 때문에 시작된 우리나라 해외 입양의 역사는 어언 반세기를 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입양의 원인이 '가난'에서 이제는 '부적절한 임신'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1.12명의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와중에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낳은 아이를 스스로 양육할 상황이 못돼 외국으로 보내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미혼모의 양육수당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을 앞두고 있다. 미혼모들도 자신의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란다.

정리 · 김지영 기자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우향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 중점기획 '우리는 지금 환경선진국으로 간다'를 읽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관심사인 녹색 경제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특히 각종 권위 있는 해외 언론매체들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 개선, 생태 복원 등에 힘쓰는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집중 보도한 내용을 보고 가슴 뿌듯했습니다. 녹색기술을 토대로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2. '콘텐츠 산업으로 청년취업난 푼다'를 읽고 콘텐츠와 미디어, 3D 산업이 앞으로 크게 발전해 국가 미래를 짊어질 신성장동력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들 산업은 고도의 지식과 창의력, 기술을 요하고 20, 30대 청년층이 많은 관심을 가진 분야라 심각한 청년실업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초중고생들의 소풍과 수학여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날을 '놀고 쉬는 날'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유익한 소풍과 수학여행이 되도록 다양한 야외 현장학습 프로그램과 체험정보를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황복희 대전 동구 성남동

1. '침묵의 귀환…대한민국의 가슴에 묻다'를 보며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천안함 전사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마음은 천근만근이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해군이 더욱 강한 국군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천안함의 아들들이여, 당신들의 충정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2. 일전에 〈아바타〉를 관람한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번호 기획특집 기사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주지하듯 석유와 광물 같은 부존자원이 딱히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우수한 두뇌에서 창출되는 3D IT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세계시장에 우뚝 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반도체와 휴대폰이 그러하듯 말입니다. 우리는 저력 있는 국가요, 민족입니다. 반드시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IT 강국 코리아, 파이팅입니다.
3. 무더운 계절이 곧 다가옵니다. 봄은 워낙 짧으니까요. 청계천의 신화를 벤치마킹하여 하천을 되살리고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도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여름엔 이러한 곳을 찾아 피서하는 센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걸맞은 지역을 탐방해 화보와 함께 실어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4월 28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브라보! 함께 가는 勞링(使)랑'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2012년 12월 말까지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은 모두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됩니다

디지털 전환의 혜택

1. HD급 고화질에 풍부한 음향

선명해지고 넓어진 화면, 입체음향으로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정보도 얻고 프로그램까지 한 눈에!

전자프로그램 가이드(EPG)를 통해 프로그램 시작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방송을 통해 뉴스, 날씨, 증권, 교통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아날로그TV 방송보다 용이한 수신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과는 달리 HDTV 실내 안테나로도 쉽게 수신됩니다.

2008년 3월 제정된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종료되고, 완전한 디지털 방송 시대가 열립니다. 2012년 이후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TV를 구입하거나 기존 아날로그TV에 지상파 디지털 컨버터를 연결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청 설비를 개선하면 보다 간편하게 지상파TV 방송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TV로는 지금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유료방송(케이블 · 위성 · IPTV) 가입자는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품을 유지하더라도 TV를 시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2012년 12월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TV 방송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도 아날로그TV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날로그TV에 지상파 디지털 컨버터와 안테나를 연결시키면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문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번없이 1335번 또는 디지털 방송 콜센터 080-2012-012 / 국번없이 1665-1335
인터넷 www.dtv.go.kr, www.dtvkorea.org로 연락바랍니다.

B4E 이명박 대통령 기조연설

"생명보호와 경제성장 동시 추구 4대강살리기는 녹색뉴딜"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4월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B4E)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글로벌 녹색경제를 위한 성장동력'이라는 주제로 4월 21~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B4E는 세계 경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환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환경회의. 4월 22일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대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각국의 정치·경제 지도자들에게 범지구적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요청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40주년을 맞이하는 '지구의 날'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대한 인류의 각성이 이제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많은 생명체가 어울려 사는 공동의 집이자 우리 삶의 행복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는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인류는 전쟁과 기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야말로 일찍이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가장 거대한 도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국토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는 몰디브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불과 40년 후인 2050년 무렵엔 동식물의 30퍼센트 정도가 멸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읽었습니다.

'자연에는 구제금융이 없다'는 말처럼 이대로라면 지구의, 인류의 미래를 기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위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나부터 실천 Me First'

저는 지난 연말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Me First' '나부터 변화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적 실천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나부터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환경을 위해 경제를 포기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환경'과 '경제'의 양립이 필요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녹색기술과 산업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나가자는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를 녹색 분야에 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퍼센트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이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자발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로 증가한 우리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이 국제적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나부터(Me First)'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 관리는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

우리의 녹색성장은 또한 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연자원이며, 다른 자원과는 달리 대체재가 없는 만큼 에너지보다 높은 국가안보 차원(Water Security)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5억명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 부족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신흥국의 물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20년 뒤 전 세계의 약 40퍼센트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대 문명을 꽃피운 황허의 강물이 말라서 바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습지가 사라져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아랄해가 갈수록 말라가고 있습니다. 물 부족의 미래를 경고하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책을 손꼽고 있습니다.

첫째, 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물 사용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물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특히 물 공급 확대와 물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2030년의 물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강살리기 사업이야말로 여기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생명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강들 역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오염된 주요 강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릴 것입니다.

또한 핵심 수자원을 13억 톤 이상 늘려 미래의 물 부족을 완전히 해소하는 동시에, 재사용과 효율화를 통해 물 생산성도 높일 것입니다. 오는 2012년 여러분이 한국을 방문하시면 그 성과를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지구적 파트너십 필요

올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공포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경영 형태와 삶의 관습을 바꾸고, 종합적인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변화를 주저하게 하는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어 각 경제 주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녹색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새로운 녹색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범지구적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어느 누구도 환경위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우리 공동의 책무입니다. 저는 국제 공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설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기구인 IPCC가 기후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구명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면, 오는 6월 출범하게 될 GGGI는 장차 기후변화의 도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국제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없는 지구도, 또 지구 없는 인간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제3차 B4E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도 함께 생각하는 '지구 책임적 시스템 (Planet-responsible System)'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화석연료 일변도의 문명을 탈피해서 지구와 인간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녹색 공존의 문명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40주년이 되는 지구의 날을 맞아서, 인류 모두가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과 기후변화의 위기를 거듭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구를 위한 지금의 노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G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녹색성장 기술 등 기업 역할 논의할 때"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제4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B4E)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이 회의에서 다양한 토론의 패널로 활약한 그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업이 앞장서서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4월 22일 제4차 B4E 개막식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도에 서울의 위치를 부산이나 제주도로 잘못 표시했다고 해서 한국이 지구상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4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B4E)에 참석한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의 위험이 과장됐다'는 기후변화 회의론자의 주장에 이렇게 반문했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200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두 가지 오류가 발견됐다고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데이터 전부가 틀렸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2035년이면 히말라야의 빙하가 사라지고 아프리카의 작물 수확량이 2020년까지 절반이나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IPCC 등은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기후게이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은 영국 이스트잉글리아대 기후연구소(CRU)에서 해킹돼 공개된 1천여 건의 전자우편과 문서를 보고 연구원들이 입맛에 맞는 결과만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가 '환경장사꾼의 눈속임이 아니냐'는 것.

슈타이너 총장은 "기후변화가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기후변화는 미래세대까지 겪게 될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그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매일 드러나는 변화의 징후를 갖고 기후변화란 퍼즐을 완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IPCC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미디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정적으로 행동한다는 비판이 있다.

선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IPCC는 기후변화 학자들로부터 너무 보수적이라고 비판받는다. 일례로 저명한 학자들이 예측한 해수면 상승치는 IPCC가 내놓은 것보다 더 비관적이다.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기후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세계빙하감시기구(WGMS)가 2008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빙하가 녹는 속

도가 2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2004년 한 해 동안 녹은 빙하의 양이 1998년보다 2배 더 많았던 것만 봐도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IPCC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IPCC는 기후변화 현상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업, 교통, 건설 등 다양한 분야가 겪게 될 기후변화 충격을 설명하고 그에 적절한 대비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이 정보를 접한 개별 국가에 달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서는 것이다.

개도국은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이 기후변화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기 중에 방출된 온실가스 대부분은 선진국이 배출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20퍼센트 줄이기로 했다. 다른 선진국들이 적극 협조한다면 30퍼센트까지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개도국들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정치적 압박을 계속 가하는 한편, 숲과 습지를 보존하는 등 기후변화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빈곤과 자연재앙 등 여러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후변화는 삶의 질과 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중요한 건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녹색기술과 친환경 제품 개발, 에너지자원 효율화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말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어떻게 평가하나.

큰 수확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 희망을 남겼다. 1백여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합의를 도출하고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것은 전향적이다. 올해 말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당사국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개도국들이 저탄소 녹색경제 시스템 구축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가 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려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

코펜하겐 합의 이후 이들 국가도 단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내놓고 있다. 환경을 살리면서 경제발전을 꾀하는 녹색성장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공감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초고속철도 산업을 추진 중이며 브라질은 바이오연료와 풍력발전을 연구한다.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움직임이다.

> **"개도국들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정치적 압박을 계속 가하는 한편, 숲과 습지를 보존하는 등 기후변화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당면 과제는.

각국 정부가 녹색경제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시장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둔 창의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려면 기업들도 탄소배출량이 적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B4E는 바로 이를 위한 혁신적 방안을 소개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B4E에서는 특히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과 녹색기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G

글 · 변태섭(동아사이언스 기자)

"2030년 약 40퍼센트 물 공급 부족" 전망

앞으로 20년 후에는 물이 금보다 비싸질지 모른다. 국제금융공사와 매킨지, 코카콜라, 네슬레 등으로 구성된 '2030 수자원그룹(Water Resource Group)'은 지난해 수자원의 미래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2030년에는 물 수요 증가로 약 40퍼센트의 공급부족 현상이 예상되며,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물 안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물 수요량이 지난해 4조5천억 세제곱미터에서 2030년 6조9천억 세제곱미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 공급량(4조2천억 세제곱미터)을 2030년에도 똑같이 적용할 경우 총 수요량의 40퍼센트가 모자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수자원의 불균형을 감안해 2030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은 물 공급이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구가 많고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 중인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은 2030년에 전 세계 인구의 40퍼센트, 국내총생산(GDP)의 30퍼센트, 물 수요의 42퍼센트를 차지할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벼농사와 화력발전에 따른 물 수요 증가와 수질오염으로, 인도는 인구증가로 인한 농수산물 수요 증가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됐다.

글 · 김지영 기자

신속 방역대책으로 구제역 확산 막는다

구제역 위기경보 '경계' 단계… 긴급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인천 강화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가축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최고 수준의 위기관리체계에 돌입했다.

4월 21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충북 충주시 소재 양돈농가와 강화군 한우농가 두 곳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강화 한우 농가 한 곳을 제외하고 두 건이 양성으로 판명났다. 충주지역은 내륙교통의 중심지에 있고, 돼지의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소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월 22일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지역의 신속한 가축 매몰과 이동 통제를 위해 군경 등의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사람과 상품의 왕래가 많은 중국, 일본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항과 항만의 소독 설비와 인력을 늘리는 등 국경 검역을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또 가축을 매몰처리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상수도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 등을 충분히 확보해 조달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충주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우제류(偶蹄類·소, 돼지 등) 가축을 신속히 매몰처분하기로 했다.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된 강화지역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5백 미터까지 매몰처분하되, 확대 여부는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단계를 유지하되 '심각'단계에 준하는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된 구제역대책본부 본부장을 기존 제2차관에서 장태평 장관이 직접 맡아 진두지휘키로 했다. 각 시도, 시군에도 모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동안 부단체장이 맡아오던 본부장을 단체장이 맡도록 했다.

섭씨 50도에서 바이러스 사멸… 조리·살균식품 문제없어

방역당국은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강화나 김포의 발생 농장과 관련이 있는지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사람, 차량 등의 왕래를 통해 서로 관련 있는 농장을 추적하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4월 22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축산농가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담화문 발표는 국민들에게 구제역에 대해 정확히 알

주요 과거 구제역 발생 상황

구분	기간	발생 시군	도살처분	피해액
2000년	3월 24일~4월 15일 (22일간)	3개도 6개 시군	2216마리	3006억 원
2002년	5월 2일~6월 23일 (52일간)	2개도 4개 시군	16만155마리	1434억 원
2010년	1월 2~29일 (28일간)	1개도 2개 시군	5956마리	425억 원 (추정)

증상 잠복기간 : 2~8일, 최장14일

- 체온상승, 식욕부진, 우유생산 급감
- 침을 심하게 흘림
- 발굽 사이, 젖꼭지에 물집 발생
-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함

돼지

- 발굽의 심한 고통으로 절뚝거리거나 기어다님
- 발굽 물집 또는 발톱 탈락
- 콧잔등에 큰 물집 형성

구제역 혈청형

작은 RNA 바이러스로 7개의 혈청형으로 분류

SAT1 SAT2 SAT3

올해 초 포천지역 혈청

- 산성 성분(pH7 미만)과 만나거나 50도 이상의 온도가 되면 소멸
-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음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축산농가 및 국민 수칙

- 축사 내·외부 및 기구에 대한 소독 강화
-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자제 및 입국 5일 이내 축사 출입 자제
- 국내 구제역 발생지역(강화, 김포, 충주) 방문 자제
- 축산농가 간 모임 금지
- 차량소독과 이동통제에 적극 협조

자료: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아DB

려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전파 차단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4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해 구제역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구제역은 발굽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

구제역(口蹄疫)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구제역은 입과 발굽에 생기는 돌림병이란 뜻으로, 이 병에 걸리면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생기고 잘 걷지 못하며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은 A급 질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수포액·분변 등 직접 접촉, 오염물 바람 타고 전파되기도

구제역 바이러스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전파된다. 첫째,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에 오염된 사료나 물을 먹거나 직접 접촉해 전파된다. 둘째, 발생 농장의 사람, 차량,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간접 접촉돼 전파될 수 있다. 셋째,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생기는 오염된 침방울에 섞인 바이러스가 바람을 타고 이웃 농장에 전파될 수 있다.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아

구제역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발병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은 없다.

구제역 감염된 가축 고기 유통 가능성 거의 없어

도축장에서는 질병 우려만 있어도 도축을 하지 않으며, 도축 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므로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도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도축된 고기는 예냉(품질 변화를 억제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온도로 냉각시킴) 과정을 통해 숙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산도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산도(pH) 6 이하 또는 산도 9 이상에서 사멸한다.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조리한 고기나 살균한 우유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된다. 그러므로 시중 육류나 유제품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철저한 소독·의심 가축 신속 신고해야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의심 가축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및 기구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구제역 등 질병 의심 가축을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한다. 일반인들도 구제역 발생 지역이나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축산농가를 방문할 때는 차량 소독은 물론 사람도 분무형 소독기 등으로 소독해야 한다.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가축까지 매몰처분하는 이유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반경 5백 미터(충주는 3킬로미터) 이내의 우제류를 매몰처분하는 것은 설사 구제역에 걸리지 않았어도 발생 지역과 가까워 구제역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제역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걸리면 무조건 폐사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매몰 가축 시가 보상… 보상금 절반 미리 지급키로

정부는 매몰처분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축산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50퍼센트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축을 키우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 가축 시세의 1백 퍼센트 금액을 3퍼센트 이자 2년 거치 3년 상환 방식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 Tel **1588-4060, 1588-9060**

강이 살아야 국토가 산다

4대강살리기는 '생명'살리기

4대강살리기는 단군 이래 최대의 치수사업.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게 당연하다. 4대강살리기가 왜 생태와 환경,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업인지 최근의 논란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Q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콘크리트 둑을 쌓는다는 우려가 있는데.

A 4대강살리기는 강을 일직선의 콘크리트 수로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생태계 복원과 이·치수를 동시에 추진하는 녹색사업이다.

국가하천 9백29킬로미터 주변 경작지와 무허가 시설물 등을 철거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 기존 습지는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고, 강바닥의 경사를 완만히 해 사업 후 자연스러운 습지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낙동강 상류의 달성습지, 금강의 장암습지와 외암습지 등은 원형을 보전하고, 낙동강 해평습지의 하중도와 철새 서식처인 모래톱도 그대로 살린다.

또 제방 및 저수호안 보강도 콘크리트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 식생호안 등을 설치한다. 하천 내에는 돌무더기, 굴 등을 조성해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산란지와 은신처 등을 제공한다. 제방에는 수생동물과 육상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생태벨트와 이동통로를 조성한다.

4대강살리기에 투입되는 전체 콘크리트 물량 1백60만 세제곱미터(16개소)는 전체 하도 준설량 5억7천만 세제곱미터의 0.3퍼센트에 불과하다.

Q 하천변 유기농업까지 전면 금지하는 이유는.

A 정부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의 주범인 비닐하우스 등 하천 내 경작지를 모두 자연 상태로 복원 중이다. 유기농의 경우도 유기물, 질소, 인의 유출로 수질에 영향을 끼치므로 경작을 금지하는 게 불가피하다. 유기농법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진 않지만 유기질 비료 사용으

로 하천의 부영양화 등을 초래한다.

경기 팔당호 일대의 경우 편입 대상 유기농 면적은 18만4천 제곱미터로 팔당 3개 지역 전체 유기농 면적 6백4만3천 제곱미터의 3퍼센트 수준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팔당지역은 국가 소유 하천부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해왔고 보상도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공사 중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되도록 대체농지 공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Q 세계적으로 기존의 보(洑)를 없애는 추세라는데.

A 미국, 일본의 경우 노후해 안전성이 우려되거나 토사 퇴적 등에 의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보나 댐을 철거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약 8만5천 개의 보와 댐이 있는데, 2020년에는 85퍼센트가 노후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방 높이가 낮은 소형 댐을 철거했으나 현재 대형 댐 철거가 논의되고 있으며 약 1천3백33개의 댐이 연방 댐 안전당국에 의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에서는 농업용수 취수용 보 3백26개를 시설 노후화, 취수시설 통합 등의 이유로 철거했으며 토사 퇴적 등으로 상류에 침수를 유발하는 댐에 대해 철거를 검토 중이다. 1919년 준공된 아와이보는 철거하고 가동보를 설치할 계획이며, 1924년 준공된 도도로키댐은 댐을 하류에 건설하는 조건으로 철거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천의 오래돼 방치된 소규모 보를 제거하고 있다.

겹겹이 둘러싼 장대한 능선과 그 사이로 쉼 없이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 4대강살리기는 구불구불 흐르는 강의 본래 모습을 살리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치수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아DB

동아DB
강 살리기의 효과는 도시 가까이에서 아름답게 되살아나고 있는 한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Q 영산강이나 금강, 혹은 낙동강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다.

A 홍수, 가뭄 등으로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더 많은 복구비가 들어가므로 최대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2~06년 5년간 평균 홍수 피해액만도 2조7천억원이고 복구비로 4조2천억원을 썼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하나의 강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자는 주장이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강을 살리는 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강은 없다. 기상이변으로 극심한 수해나 가뭄이 생겼을 때 선택되지 못한 강에서 피해를 보면 큰 문제다. 시범사업은 한강, 태화강에서 이미 이뤄졌으며 그 효과도 검증됐다.

4대강살리기의 완료 시기를 2011년으로 결정한 것은 한강 정비 등 유사사업의 추진 경험과 건설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Q 홍수 피해는 대개 지천과 강원도 등 산간계곡지대에서 발생하지 않나.

A 국가하천은 대도시에 인접해 홍수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낙동강의 경우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남한강은 2006년 태풍 웨이니어로 여주지역이 범람 직전까지 갔다.

따라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4대강에 집중 투자해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하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본류 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4대강살리기를 추진하더라도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샛강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10년간 치수 사업비의 72퍼센트를 지방하천에 투입해왔다.

4대강살리기로 호남의 젖줄 영산강이 살아난다.

동아DB

Q 우리나라에는 물이 얼마나 부족한가.

A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기준에 따르면 물 부족 국가의 기준은 연강수량이 1천7백 세제곱미터 이하다. 우리나라는 1천5백12세제곱미터로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 PAI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 유엔 산하기구 보고서에 공식 인용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적다. 2003년 유엔 조사 결과 수자원량이 1백53개국 중 1백26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집중호우와 가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여름철에 내리는 비가 연강수량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면, 1년 중 절반을 차지하는 갈수기(10월~이듬해 4월)에는 강물이 메말라 물이 부족해진다. 영산강의 경우 갈수기에는 4~6급수로 전락해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렵다.

2008년과 2009년에는 48개 시군 7만 가구가 제한급수 또는 운반급수를 받아야 했다. 2016년에 10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수년 내 곧 닥쳐올 물 부족에 대비하는 것은 미래의 생존권을 위해 시급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총강수량은 1천2백40억 세제곱미터지만 이 가운데 이용량은 27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홍수 때 버려지는 물을 담는 '물그릇'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4대강살리기를 통해 총 13억 세제곱미터의 물그릇이 늘어난다.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도 물그릇을 키우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홍수 방어대책은 제방을 높이는 데 치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바닥이 높아지므로 제방을 쌓는 데 한계가 있고 물그릇도 작아졌다. 그러므로 강바닥에 쌓여 있던 퇴적물을 걷어내 근본적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물그릇도 키우려는 것이다.

Q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는.

A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4대강살리기에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개선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뤄지는 턴키공사는 20퍼센트 이상, 일반공사는 40퍼센트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총공사비 10조7천억원 중 최소 57퍼센트에 해당하는 6조1천억원의 공사를 지역 업체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95개 사업 중 42개 사업이 착공됐고, 전체 공정률이 8퍼센트대로 공사 초기단계다. 앞으로 착공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제한사업으로 발주돼 지역 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반사업은 지역 업체 위주로 하도급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하도급,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지방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대강살리기로 활성화할 관광·레저·문화산업 등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등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Q 사업 추진 중에 홍수 위험은 없나.

A 3백65일 24시간 물 관리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철저하게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홍수기 공사 현장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실시간

으로 제거하고, 댐-보-하천의 홍수예방 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한다. 또 물 관리 시스템 개선,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홍수 대비 종합모의훈련을 통해 수해에 대비한다.

아울러 홍수기 중에는 홍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공사만 시행하는 등 공정을 조정해 시행한다. 가물막이는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낮게 설치하고, 홍수기 이전에 완전 철거해 홍수에 대비한다.

Q 식수에 대한 안전 대책은.

A 하류지역과 취수장 주변에 각각 2중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준설선 사이를 2킬로미터 이상 떨어뜨리므로 취·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또 흙탕물이 발생하는 수중 준설은 전체 준설 물량의 20~30퍼센트에 불과하고, 국지적으로 발생한 부유물질은 5백 미터 이내에서 대부분 가라앉는다. 따라서 취수장 인접지역 외에서 시행되는 준설은 정수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수장 인접지역인 5백 미터 이내의 준설은 10일 이내로 최대한 단기간에 시행하고, 상시 감시인력을 배치해 취·정수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취수장 입구에는 탁도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수질을 측정하고, 관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준설물량 조정, 오탁방지막 추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대강살리기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 농도는 1리터당 30~40밀리그램 이하를 유지토록 하고 있어 취·정수에는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홍수기에 취·정수장으로 유입되는 흙탕물 농도는 보통 1리터당 1백~3백 밀리그램 수준이다. 최대 1천 밀리그램까지 측정되기도 하지만 홍수기에도 응집제 투입, 여과시간 조절 등의 조치만으로 취수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Q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A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중점관리유역으로 선정해서 하천 수질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오염도와 상수원 유무 등을 고려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한다. 부영양화의 원인인 인의 처리를 위해 5천억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에 3백53개소의 화학적 처리 공정을 설치한다. 또 하천 구역 내 1억6천만 제곱미터의 경작지를 보상 정리해 농약 등 오염물질의 유입을 억제한다.

Q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지는 않은지.

A 4대강살리기는 물 문제 해결뿐 아니라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는 신속히 진행하되, 내용은 철저히 함으로써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는 마스터플랜 착수 이전부터 진행했으며 수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올 1월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전문가 등으로 환경평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평가서 작성부터 협의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Q 대운하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A 4대강살리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 △4대강살리기는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 △4대강살리기는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4대강살리기는 선박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는다. △4대강살리기에서 확보되는 수심은 일정하지 않다. 화물선을 운행하려면 전 구간에 일정한 수심(최소 6.3미터)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구간별 최소 수심이 2.5~6미터로 제각각이라 화물선 운행이 불가능하다.

△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강의 선형을 지금대로 유지한다. △대운하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 폭을 유지(최소 2백~3백미터)해야 하지만 4대강살리기는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하므로 구간별로 수로 폭이 다르다. △4대강살리기는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

Q 보를 설치하면 주변 지역이 침수된다는데.

A 4대강에 보가 설치돼도 주변 지역의 침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보 중에서 낙동강의 함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함안보의 경우 침수 가능성이 파악된 후 관리 수위를 당초 7.5미터에서 5미터로 낮춰 침수 영향지역을 14제곱킬로미터에서 0.7제곱킬로미터로 최소화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농경지 성토와 배수시설 확충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G

정리 · 이혜련 기자

"가물막이 안 물고기는 모두 방생"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강살리기 3공구'(경기 여주군 능서면 내양리 일원) 하천 준설 현장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공사3팀은 가물막이 양수작업 중 웅덩이로 모인 물고기를 인근 지역주민들이 가져간 뒤 남아 있던 30~40마리의 물고기가 수량이 부족해 죽었다며 준설작업을 하면서 흙탕물이 발생해 물고기들이 폐사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향후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를 위한 양수작업 시 전담요원을 배치해 민간인 접근을 차단하고, 물고기를 강으로 모두 방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4대강살리기 사업 전체 현장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들어오니 취업 1위 도시 됐다

美 오스틴·RTP 사례 '세종시' 모델 떠올라

세종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독일 연방정부 분할에 따른 현안 과제, 미국의 오스틴과 RTP(Research Triangle Park) 등 과학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한 도시 발전 경험 등을 통해 신성장거점이 될 세종시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원과 한국지역학회 등 4개 학회는 지난 4월 6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신성장거점, 세종시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악셀 부슈 독일 베를린도시환경계획연구소 이사가 '독일 본·베를린 정부 부처 분할과 한국에 주는 교훈', 윌리엄 데이비드 포터 미국 오스틴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이 '오스틴의 발전 경험과 성공 요인', 마이클 자파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가 '미국 RTP의 발전 경험과 성공 요인',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토 공동 발전을 위한 신성장거점, 세종시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악셀 부슈 이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독일은 베를린과 본으로 정부 부처가 분할돼 있어 비효율이 크다며 한국 정부 부처가 서울에 계속 있게 되면 독일과 같은 정부 부처의 공간적 분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가 한번 분할되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다시 통합하기가 쉽지 않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세종시의 매력은 정부 부처 이전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 구체적 기능, 국가적·국제적 맥락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DB

세종시의 모델인 미국 동부의 실리콘밸리 RTP. 50여 년 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입주 기업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오염배출 업체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했다.

윌리엄 데이비드 포터 부회장이 소개한 오스틴은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과학·첨단산업 도시. 풍부한 일자리, 글로벌 대기업,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 양질의 생활환경, 정부의 조세·신기술 지원 등을 두루 갖춰 미국 내 취업하기 좋은 도시 1위, 청년층 인구의 거주 선호 1위 도시로 꼽힌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더럼, 채플힐 3개 시 중앙에 위치한 첨단과학기술 연구단지를 일컫는 RTP는 1백70여 개의 세계적 기업들이 입주해 4만2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미국 내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공공 교육 시스템 2위의 도시다. 자파타 교수는 RTP의 성공 요인으로 장기비전 및 실천, 모험적 기업가정신 지원 프로그램, 클러스터 형성, 대학의 연구 지원, 신비즈니스 투자 촉진 등을 들었다.

美·獨 전문가 등 모여 세종시 미래 위한 심포지엄

김영표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는 산업·대학·과학 기능이 융복합된 신경제발전 모델을 구현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별 특성화와 기능적 연계를 통해 상호 교류하면서 주변 지역과 충청권, 나아가 국토 전체의 공동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세종시 발전 방안에 따르면 고용인구의 대폭 증가로 도시가 다이내믹해지므로 교통체계를 다기능화하고, 정보교류가 원활하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스틴의 경우 문화자산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생활여건 때문에 빠르게 발전했다며 세종시도 문화, 교육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밖에도 연구소만이 아니라 대기업 본사 유치에도 노력해야 하며, 지역 인재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G

글 · 이혜련 기자

악셀 부슈 베를린도시환경계획연구소 이사

"본·베를린 공무원들 한 해 6만6천 번 왔다갔다…"

"서독의 임시수도이던 본은 행정 부처가 대거 베를린으로 이전한 후에 전보다 일자리가 1만 개나 늘었습니다. 유력기업과 국제기구를 유치하면서 경제 및 외교, 문화 중심지로 재도약했기 때문이죠." 행정부 이전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이야기다.

악셀 부슈 베를린도시환경계획연구소(TOPOS) 이사는 '신성장거점, 세종시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그는 통일 이후 베를린 정부청사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 참여했고, 1972년부터 2005년까지 베를린예술대학 도시설계담당 교수를 역임했다.

부슈 이사는 독일 통일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정부 부처 분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해온 인물. 지난해 말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들이 독일로 찾아왔을 때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라면 행정 부처 이전보다 대학이나 연구소를 옮기는 게 낫다"며 세종시 수정안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이번 심포지엄과 기자 인터뷰에서도 같은 의견을 견지했다.

기자가 "중앙 부처 이전 없이는 세종시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세종시 원안 고수론자들의 논지를 전하자 그는 서독의 임시수도이던 본의 사례를 들며 이를 반박했다. 그는 "정부 부처보다는 기업이나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는 게 도시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더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하나의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행정기관 이전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독일의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는 것이다.

악셀 부슈 독일 베를린도시환경계획연구소 이사는 행정기관 분산의 비효율성은 독일 사례로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균형발전보다는 경쟁력 있는 도시 만들어야"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1992년 베를린을 수도로 정한 연방협약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의회와 대법원, 14개 중앙 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부슈 이사에 따르면 본과 베를린 사이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출장 횟수가 2006년 한 해 6만6천 회나 됐다고 한다.

그는 "독일 통일 당시 외국 사례를 조사해봤지만 런던, 파리, 로마 등 대부분의 수도에는 정부 부처가 반경 2, 3킬로미터 이내에 모여 있었다"며 "모든 부처가 한곳으로 다 이동한 적은 있어도 독일처럼 정부가 쪼개져 있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독일 국민들 중에도 부처 분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편이다. 2006년의 한 설문조사 결과 36퍼센트는 "분할 상태가 좋다"고 응답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47퍼센트는 "하나로 다시 합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부처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독일은 한번 나뉜 정부 부처를 한곳에 다시 모으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부처 분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2천5백만 유로에 이르지만, 이들을 합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부처 통합이 지연되고 있죠. 또한 베를린이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다른 지역민들의 견제심리도 있어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그는 "행정기능이 한번 나뉘면 다시 합치는 게 이렇게 어렵다"며 "그래서 부처 이전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요즘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골고루 발전하자는 균형발전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더 강하게 만들자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예전처럼 모든 지역이 비슷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개념은 독일에서도 많이 쇠퇴했다"고 소개했다. G

글과 사진 · 유재동(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20년 만에 여의도 140배 땅 생겨 세계적 랜드마크 만들겠다"

20년 새만금 공사 준공 강현욱 위원장

새만금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새만금종합개발 첫 사업으로 착공된 새만금 방조제가 무려 20년에 걸친 대공사를 끝내고 4월 27일 준공식을 갖는 것.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 실천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새만금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제 1단계 개발사업이 펼쳐질 새만금은 앞으로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까.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명품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취임한 강현욱 위원장을 만나 새만금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새만금 사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방조제가 20여 년 만에 준공돼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두 차례 전라북도 지사(24대, 31대)로, 또 환경부 장관(1996.12~1997.8)으로 새만금 사업에 오래 관여한 내게 방조제 준공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명품 복합도시로 가는 시발점이라 큰 의미가 있다. 기쁜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의 통합성을 담보하는 계획을 의욕 있게 추진하고 있어 새만금의 미래는 아주 희망적이다.

2008년 10월 기존 농지 개발에서 다목적 개발로의 전환을 제시했던 새만금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의 방향이나 이번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 실천계획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앞으로 추진 시스템을 단일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숙제다.

동아DB

4월 27일 준공식을 갖는 새만금 방조제 신시배수갑문 주변. 방조제 준공은 명품 복합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호탄이다.

종합 실천계획안에서 주목할 점을 꼽자면.

역시 산업, 국제업무, 관광레저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세계적인 명품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4백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방대한 새만금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투자 유치 및 개발이 가능한 지역마다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물의 도시라는 새만금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7월 계획안에 이어 구체적인 수질 목표 달성 대책과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명품을 만들어보자'는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

복합도시 디자인, 용지의 기본 틀과 개발 구상도 일부 보완됐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투자 유치를 위해 매력적인 요인을 살리고 토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형 디자인을 선택했다. 이 디자인은 기능 간 연계에서 큰 장점이 있다. 복합도시용지, 농업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과학·연구용지 등 8대 용지의 기본 틀과 배치 방향을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부 조정하고 보완했다.

인접한 군산공항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항 주변 농업용지와 인근 과학·연구용지를 일부 교환했고, 두 곳의 군산 부근 농촌 도시 중 한 곳이 배후주거단지와 중복돼 위치를 조정했다.

또한 향후 투자자의 의견, 주관 부처의 용지별 개발계획 수립 방향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띠게 한 것도 이번 안의 특징이다.

개발 과정에서 수질 등 환경 문제 개선 대책은.

2001년 정부가 마련한 관계 부처 합동 수질대책 등의 실천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해왔기 때문에 수질오염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더구나 그간 수질 개선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전북

조영철 기자

강현욱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이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이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세계적 명품 복합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범국민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수질오염원이 적다. 그래도 개발 과정에서 수질오염 제거와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환경용지 3천 헥타르를 5천9백50헥타르로 확대했다.

또한 가축 분뇨 등 오염 부하가 큰 오염원을 줄이고 내부 간척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이번 안에서 제시했다.

땅을 메우는 데 쓰일 막대한 매립토와 기반시설 확보 진행 상황은.

매립사업과 기반시설 건립은 투자 유치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매립토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매립토 자원(약 6억 세제곱미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산항과 금강 하구언 주변, 방조제 외해역 등에 충분한 매립토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초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반 시설 중 항만은 지난해 10월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3, 4선석을 단지 조성에 맞춰 2021~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항공 부문에선 군산공항을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소음 문제가 해결되면 현재의 활주로와 같은 방향으로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새만금 철도도 2020년까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2010년 6월)돼 건설될 예정이다. 포항~새만금 고속국도 역시 경제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조기 착공할 것이다. 방수제 건설은 일괄 입찰 등을 통해 올해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 유치 가능성을 예상해달라.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라 민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방식의 사업 홍보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명품 복합도시를 얘기하면서 두바이를 비교하는데, 사실 두바이는 모든 경제활동을 빌딩 내에서 이뤄지게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 이에 비해 복합 기능을 갖춘 새만금 도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아주 높다.

4월 20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2개국 주한대사에게 새만금 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 14일에는 새만금포럼 및 투자 유치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투자 유치 전망도 밝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나.

새만금은 토지 전체가 국가 소유이므로 싼 가격에 활용할 수 있다. 분쟁도 적고, 민원도 거의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국내외의 활발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단시일 내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만금 내) 특정 지역을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부분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볼 필요는 있다. 이미 새만금지역 경제자유구역으로 산업단지 1천8백70헥타르와 관광용지 9백90헥타르를 지정했다. 정치적인 고려와 판단을 배제한 상황에서 관련 규제 개혁 논의가 검토돼야 한다. G

글 · 유재영 기자

12만 개의 '희망'이 펄럭입니다

4월 27일부터 열흘간 '2010 새만금 깃발축제'

5월은 바다에서 펼쳐지는 세계 최대의 '깃발 판타지'를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기념하는 새만금 깃발축제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신시도 광장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일대에서 펼쳐진다.

축제 기간 중에는 전북 새만금을 명품 복합도시로 변신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개발 목표가 다양한 형태로 아로새겨진 12만 장의 깃발과 조형물이 축제 행사장을 온통 수놓게 된다.

이번 축제에서 깃발은 희망과 소통의 상징이다. 깃발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축제 추진본부인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깃발에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나부끼게 한다는 뜻에서 깃발축제 홈페이지(flagfestival.kr)에 찾아와 남긴 10만명의 희망 메시지를 새긴 희망나무 깃발을 제작해 전시할 예정이다.

전북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희망원정대 40명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받은 국민들의 메시지도 희망나무 재료로 활용된다. 이는 새만금을 '인간 중심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퍼포먼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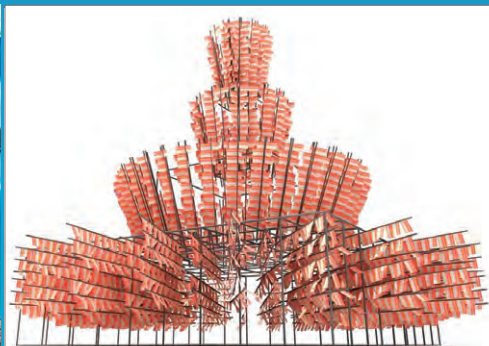
희망 메시지가 담긴 깃발은 2010년을 상징하는 2천10개의 깃대에 묶여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3미터에 달하는 희망나무로 행사장 중심에 세워진다.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라 웅장한 자태를 자랑한다. 사실상 이번 축제의 랜드마크이자 최고의 볼거리.

이 깃발나무에서 '교수님 시험 쉽게 내주세요' '시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남자 친구가 바람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등 국민들의 재미있고 소박한 소망, '천안함 장병들 무사히 돌아오세요'와 같은 간절한 희망의 메시지도 만날 수 있다.

10만명 메시지 담은 '희망나무 깃발' 전시

바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는 새만금. 그래서 오감 체험도시이자 녹색성장의 진원지가 아닐까. 이를 형상화한 바람의 미로, '바람개비 언덕'도 조성된다. 가로 40미터, 세로 20미터 공간에 깃발 미로가 연출되고, 바람개비 1천 개가 언덕을 이뤄 바람에 대한 오감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 고안된다.

대지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표현한 공간도 마련된다. 꽃밭으로 만든 무당벌레 조형물이 그것. 과거 시골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장승과 항아리와 각종 오브제가 시선을 끈다.

▶ 전주동물원을 찾은 아이들이 새만금 희망나무 깃발에 들어갈 '희망 메시지'를 적고 있다.
▶▶ 새만금 깃발축제의 랜드마크로, 국민들의 희망을 담은 깃발 6만 개로 제작될 높이 33미터의 희망나무.

새만금이라면 역시 물을 빼놓을 수 없다. 물의 생명력이 아주 강한 수변 레저도시 개발을 의미하는 한반도 모양의 연못이 꾸며지는 것. 태극기만이 아닌 G20 국가 기, 각도 시군기가 한반도 형상을 이루는 독특한 캐릭터를 연출한다.

전북도 내 14개 시군의 깃발 60개와 새만금 CI 깃발이 모인 선체 길이 60미터의 '천년 희망의 호'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는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을 희망의 호에 실어보면 어떨까.

이 밖에도 이번 축제에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행사가 열린다. 개막일인 4월 27일과 5월 1, 2일에는 전북도 전통의 '기세배놀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집단공연이 펼쳐진다. 역사의 장이었던 새만금이 이제 희망과 생명, 소통과 화합, 염원의 장으로 변모해간다는 주제다.

축제 기간 중엔 깃발체험 행사도 개최된다. 참가자가 직접 가족 깃발을 제작해보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국가의 국기, 그리고 태극기를 올바르게 그리는 법을 배우는 기회도 마련된다. 한편 축제 개막식에 앞서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을 기해 새만금 사업의 1단계인 외곽 공사가 마무리되고 2단계 내부 개발이 본격 시작된다. 1991년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 계획이 확정된 후 20년 만에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

“ 바람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새만금. 이를 형상화한 바람의 미로, '바람개비 언덕'도 조성된다. 가로 40미터, 세로 20미터 공간에 깃발 미로가 연출되고, 바람개비 1천 개가 언덕을 이뤄 바람에 대한 오감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 ”

세계 최장(33.9킬로미터) 새만금 방조제의 준공식에는 정부기관 인사를 비롯한 언론계, 학계, 해외 인사, 지역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가해 새 출발을 축하할 예정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Tel 063-280-3355

'책의 날'을 맞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낭독회를 마련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김동수 원장, 가수 박정아 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양성우 위원장, 복화술사 안재우 씨.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어린이 병원서 낭독회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다. 올해 15년째를 맞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낭독회를 열었다. 입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가수 박정아의 사회로 열린 이 행사는 복화술사 안재우 씨가 들려주는 권정생의 <강아지똥>으로 시작됐다. 또 최숙희의 <괜찮아> 등의 동화를 진행자와 어린이가 함께 낭독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낭독회가 끝난 뒤에는 낭독 도서와 학용품을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독서 권장 캐릭터 '책뽀'와 사진 찍는 시간이 마련됐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독서진흥팀 함소아 씨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던 아이들이 책과 함께한 행복한 추억으로 힘을 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한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많은 이들에게 독서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11월까지 '손 안애서(愛書)'란 이름의 낭독회를 개최한다. 4월 탈북청소년대안학교 셋넷학교를 시작으로 충남 서천군 마중물독서회(5월) 등 전국 59곳에서 생생한 목소리로 울려퍼지는 책의 향연이 펼쳐지게 된다. G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1. 복화술사 안재우 씨는 복화술로 동화책을 읽어줘 아이들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얻었다.
2. 이날 행사에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5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3. 가수 박정아 씨와 어린이 환우가 최숙희의 <괜찮아>를 서로 낭독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www.hrdkorea.or.kr

꿈과 열정의 날개를 달고 세상 위로 날아라!

열정으로 가득 찬 뜨거운 가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마음
거침없이 실천하는 힘찬 발걸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초석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평생능력개발 / 자격관리 / 외국인고용지원 / 국제협력 · 해외취업 / 기능장려 · 기능경기

6월 2일(수)
동시지방선거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기 표 소

선거관리위원회

기획특집

勞랑 使랑 선진국으로

봄이 왔어도 봄이 아니다(春來不似春). 사방에 봄꽃이 피어나도 인생을 꽃피울 무대에
서보지도 못한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시대는 진정한 봄이 아니다.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고용위기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의
일터와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勞)와 사(使)의 양보와 고통 분담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단 노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나눔과 양보가
더욱 활성화될 때 노사관계 선진화, 선진일류국가 진입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조영철 기자

동아DB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가 우려됐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노사는 4월 14일 밤샘 협상 끝에 극적으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선진국 진입, 노사관계에 달렸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노사갈등 해소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노사 간 협력관계, 고용 및 해고 관행, 고용의 경직성 등 노동 부문의 비효율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노사안정'이라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노사관계 정책에서 진일보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로 긴 여정이었다. 경기 평택시에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까지 91킬로미터의 거리는. 자동차로 두 시간도 채 안 걸릴 길을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 3월 15일 평택을 출발해 걸어서 이틀 만에 당도했다. 산업은행의 조속한 자금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쌍용차 회생을 위한 노사 공동 도보 릴레이'였다.

이 여정에는 노조원과 팀장급 이상 관리직 등 1백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의 조속한 자금 지원을 촉구하고, 쌍용자동차의 변화된 모습과 회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호소 글귀를 가슴에 두르고 도보 릴레이를 벌이는 쌍용자동차 노사의 모습 어디에서도 지난해 '옥쇄파업'을 부르짖으며 77일간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조와 이를 막던 사측의 극한적 대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경영진이 지난해 2월 2천6백46명의 인력감축 방안을 발표하자 지난해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간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3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노사분규로 입은 손실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1백33개국 중 19위로 2008년(13위)보다 6단계나 낮췄다.

노사분규는 경제적 손실 넘어 국가경쟁력 떨어뜨려

우리나라의 국가 순위를 떨어뜨린 결정적 요인은 노동 부문의 비효율성이었다. 노사 간 협력관계(1백31위), 고용 및 해고 관행(1백8위), 고용의 경직성(92위) 등 노동 분야 세부항목에서 최하위권이었다. 그동안의 한국 사회 노동운동은 수년째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2009년 9월) 응답자의 65퍼센트가 우리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응답해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4.6퍼센트)보다 14배나 높았다.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8퍼센트가 필요성을 인정했고, 35.1퍼센트는 법질서 확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김병수 사무관은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이 합리적 교섭관행과 합법적 쟁의질서 확립이란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책 기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행스럽게 사정은 개선되고 있다. 올 1월 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노사분규 현황에 따르면 근로손실 일수는 62만6천2백75일로 전년(80만9천1백68일)보다 22.6퍼센트 감소했다. 파업건수가 증가했는데도 근로손실 일수가 감소한 것은 소규모 분규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2의 쌍용자동차'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낳았던 금호타이어 노사갈등도 지난 4월 14일 극적으로 해결돼 정리해고 없는 워크아웃에 합의했다.

지난해 우리 노동계에선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무임금 등 3가지 쟁점을 놓고 노사(勞使), 노정(勞政), 노노(勞勞) 간 첨예한 갈등과 분열이 이어졌다.

상생협력 문화로 기업 · 근로자 '윈윈'

하지만 올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적용되고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으로써 노동운동과 산업현장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단체교섭 및 쟁의 행위에 따른 손실, 노조 전임자 급여 및 유급 노조활동 시간 등에 따른 노사관계 직접비용이 연간 2조8천5백44억여 원에 달한다.

노동부는 지난 2월 9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자문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협의체 자문위원들은 16개 시도와 노동부로부터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멘터로 선정된 전문가들로서,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자치단체, 노(勞)와 사(使)등 협의체 참여주체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고질병인 대립적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다.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중심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의 활발한 참여와 협력 속에서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제도의 연착륙도 가능해질 것이다.

송봉근 노동행정연수원장은 "'노사안정'이란 지금까지의 소극적 노사관계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문화에 맞는 '한국적' 노사혁신 사례를 모델화하여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점거농성이란 극한의 대립 끝에 회사 회생에 한마음이 된 쌍용자동차 노사가 지난 3월 15일부터 이틀간 벌인 '쌍용차 회생을 위한 노사 공동 도보 릴레이'.

정부는 2010년을 법과 원칙 준수, 노사 문제 자율 해결, 상생협력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양보하고 협력하면 지원하고 면제하고

2010 노사문화 선진화 원년… 정부 역량 집중

지난해 쌍용차 사태 등으로 어수선했던 노사관계가 반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동계와 기업, 정부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은 이후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새로운 노조법이 태동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노사문화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원년이다.

법과 원칙 준수, 노사 문제 자율 해결, 상생협력으로 대표되는 신(新)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의뢰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방안(2009년 8월)' '노사 양보교섭 확산 지원(2009년 7월)' 등에 관한 연구에 착수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또한 노동부는 신노사문화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2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노사관계를 전담하는 노사정책실을 신설했고, 산하에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노사관계 선진화 실무지원단은 2012년 말까지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개정법 시행과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한다. 취업난 해결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정책실 안에 인력수급정책관(1관)과 고용전략과, 인력수급정책과(2과)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로 조직 개편… 노사문화 정착 지원

무엇보다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정부는 노사 파트너십 체결, 생산성 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노사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불합리한 노사 관

www.nosabravo.or.kr

동아DB

행을 수시로 개선해 법과 제도의 선진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먼저 노사협력 확산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해 노사간 '양보교섭'을 유도하고 이를 실천한 기업은 우수 사례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양보교섭이란 경영위기에 직면한 사용자가 사업장 폐쇄 등 일반적인 구조조정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 동결 혹은 절감, 작업장 규율 합리화, 무파업, 임단협 교섭주기 연장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양보를 얻어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교섭 형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나눈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또한 양보교섭 기업은 지난해 5월부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고 있다.

원·하청기업 등 사업장 단체까지 지원 대상 확대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 조직 운영의 필요성, 장기적으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전직(轉職)교육 등으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자리 잡게 하는 등 양보교섭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축적해놓았다.

노동부는 실질적인 노사갈등 관리, 생산적 교섭 방법을 위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히 프로그램을 노사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신청을 유도하고, 소요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노사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지방노동청과 사업 수행 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원되는데, 단위 사업장에는 3천만원, 업종별 단체 사업장에는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4월 6일 '2010 노사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으로 1백 건을 선정했다. 올해에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등 사업장 단체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노사 파트너십의 기반 위에 지식 근로자를 육성하는 작업장 혁신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작업장 혁신은 △근로자 참여 및 정보 공유 △학습 조직화 및 지식 근로자 육성 △숙련·성과와 연동된 보상체계 구축 △노사협력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 측이 적극적으로 회사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

노동부는 인사노무 담당자, 노무사, 컨설턴트, 기업 퇴직자 간부 등을 통한 작업장 혁신 교육도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관계법과 지원제도에 생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 지방노동관서에서 노무관리, 산업안전, 고용평등 등 노동행정 전 분야에 대해

동아DB

동아DB

▲▲ 노동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브라보' 홈페이지를 개설해 노사정책 정보 제공은 물론 근로자 처우 및 노사갈등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다.
▲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들도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사업을 연결해주는 노동행정 종합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오프라인 지원책과 별도로 온라인에서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홈페이지 '노사브라보'(www.nosabravo.or.kr)를 개설하고 노사 지원 및 관련 법,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Q&A 코너를 통해 퇴직금, 주 5일제 근무, 입사 시 학력 및 경력 인정 여부 등 근로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의문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답변해준다.

한편 노동부는 공공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 부문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 국장은 "공무원노조, 교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의 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이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사관계 진단과 평가체계 구축, 작업장 혁신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개정된 노동 관계법

자율적 합의·공정성 보장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조 관련법 개정

지난해 한국노총, 경영자총연합회,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올해 1월 1일 국회에서 일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의결돼 시행 중이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1997년 노조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두 사안의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지 13년 만에 해묵은 노동 현안이 해결된 것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 노동조합 부담이 원칙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노사 관련법은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노사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노사 관행을 강도 높게 개혁하겠지만 새로운 법 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은 존중하겠다는 것.

일단 법 개정 자체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다. 성균관대 임종률 명예교수(법학)는 지난 3월 23일 2010 노동 관련 3개 학회 공동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복수노조 금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라는 후진적 노사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관련해 '노동자 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존 노조법 제24조 제1, 2항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엔 유급 처리가 가능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제24조 제4항)을 신설해 노사의 자율적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 간부가 노무 관리적 성격이 있는 활동을 할 경우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교

동아DB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노사정 3자 협상이 타결된 지난해 12월 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오른쪽부터)이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섭·협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 한해서다. 전임자의 이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자가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제24호 제3항)도 신설됐다.

합리적, 통상적 수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되 노조가 사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파업 등 실력행사로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거나 '타임오프'의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제24조 제5항)도 마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92조 신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 이하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4월 30일까지 근로시간 면제 기준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결과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3년마다 재결정할 수 있도록 조항(제24조 2 제2항)을 신설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노사 간 단체협약에 전임자 급여 지급 조항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수노조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해야

2011년 7월 1일부터는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신설된 규정(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또 교섭창구를 일원화해 교섭을 요구할 의무가 부과된다(제29조 2 신설). 다만 자율적 교섭창구 대표 노조 결정 기한 내에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노조별 개별 교섭이 가능하다(제29조 2 제1항).

사용자 동의 없이 교섭창구 대표 노조를 확정할 때에는 노조 간 자율 결정의 기회를 부여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한다'는 안이 제29조 2 제2항으로 신설됐다.

자율 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가 없고 노조 간 단일화에도 실패한 경우는 과반수 대표 노조가 자동적으로 교섭권을 갖는다(제29조 2 제3항). 과반수 노조가 없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의 방법으로 과반수가 되면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얻는다.

교섭대표 노조가 교섭단위 내 관련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같은 공정대표 의무는 사용자에게도 부과된다(제29조 4 제1항). G

글·유재영 기자

Q&A

근로시간 면제 기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가 도입되면 사업장 내 전임자가 없어지는 것인가.

▶ 노사가 합의해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급여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 타임오프의 상한이 결정될 경우 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할 수 있나.

▶ 이 제도는 엄연히 사업장 내에서의 합리적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상급단체 파견 업무는 개정 노조법에 규정된 타임오프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현행법에도 타임오프 제도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노조법에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 노조법(교섭, 협의),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고충처리, 노사협의회 참석),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위원회 참석 등)에 규정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업원 과반수 노조 가입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돼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못했다.

▷ 올해 상반기 중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노동조합이 전임자 규정 갱신을 위해 단체교섭 또는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교섭에 응해야 하나.

▶ 이는 명백한 평화의무 위반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타임오프 상한선 결정 과정에서 노사 간 마찰이 우려된다.

▶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을 못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는 없다. 또한 3년 후 재심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더라도 기존 상한선이 유지된다.

▷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할 사업장은 타임오프 상한선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 상한선은 늦어도 5월경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 상반기 상한선 고시 이전에 교섭이 예정된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 관련 사항은 6월 30일까지만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기한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 올해 1월 1일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효력은.

▶ 전임자 급여 지급이 금지되는 2010년 7월 1일까지만 적용된다. 이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신창전기는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노사가 '고용안전 최우선, 일정 부분 고통분담'이라는 양보교섭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냈다.

"고통을 나누니 위기가 기회로"

임금 반납·고용 유지 등 상생 합의로 살아난 기업들

우리나라가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빠른 경기회복을 이뤄낸 데는 노사의 나눔과 양보가 큰 힘이 됐다. 많은 기업이 대량 감원이라는 악수(惡手)를 두기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동결이나 반납,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대립과 분규 대신 상생과 화합으로 '위기는 곧 기회'임을 보여준 선진 노사문화 현장을 소개한다.

동부제철
가정이 살아야 회사가 살고, 회사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사불이(家社不二). '가정과 회사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으로, 지난해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동부제철의 노사문화를 대변하는 말이다. 동부제철은 그동안 몇 차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마다 사내에는 '회사가 있어야 가정도 존립할 수 있다'는 동부제철인들 특유의 정서가 형성됐고, 이를 토대로 노사가 합심해 회사를 지켜내고 성장시킬 수 있었다.

1980년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기사건에 휘말린 데 이어 1993년에는 엄청난 파업사태를 겪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동부제철의 위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97년 아산만 공장을 착공한 직후 터진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공장 설립이 중단된 것. 그러나 직원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노사가 하나로 뭉쳐 외환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해 회사 살리기에 동참한 것도 그때부터다. 그 결과 1999년에 마침내 아산만 공장이 완공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2008년 동부제철은 40년 숙원사업이던 전기로 제철사업을 위해 1조원의 신규 투자를 감행한 후 또다시 궁지에 몰린다. 당시 막 불어닥친 미국발(發) 금융위기 탓이었다. 그 충격과 피해로 회사는 공장 가동조차 어려울 만큼 최대의 위기에 몰렸으나 이때도 가사불이 정신으로 뭉친 노사의 단합된 힘이 빛을 발했다.

동아DB

동부제철은 회사를 가정처럼 여기는 '가사불이 정신'으로 노사화합 문화를 일궈냈다. 사진은 충남 당진군 송악면 동부제철 열연공장.

직원들은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나서 임금의 30퍼센트를 회사에 반납했다. 그것도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반납이었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은 자녀의 학원 수강을 중단하거나 적금을 해약하기도 했다. 노측의 이러한 자기희생에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는 '1백 퍼센트 고용유지'로 화답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기본급을 유지하고 사내 대출상환을 보류했으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창출을 꾀하기도 했다.

노사 상생을 위한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7월 동부제철은 세계에서 가장 최단 기간에 쇳물을 뽑아내는 제철공장을 완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광희 사장은 "가사불이 정신은 우리 회사의 노사화합 문화를 형성하고 지켜내는 하나의 DNA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비 때마다 회사를 위해 기꺼이 자기희생을 감내하는 동부제철인들이 눈물겨울 만큼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사측의 직원 사랑도 근로자의 애사심 못지않다. 입사하면 독신자 숙소와 무료 식사 제공은 기본. 결혼하면 사원 아파트를 주고, 자녀수에 상관없이 대학교까지 학자금도 대준다. 또 정년 후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회사가 발 벗고 나선다. 다른 회사보다 가족 근무자가 많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

박희준 노조 지부장은 "회사를 가정처럼 생각하니 근로자 자녀들의 입사 지원이 많고, 회사에서도 가족 근무를 독려해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회사는 화합의 노사문화를 넘어서 한 사람이 입사하면 은퇴 이후까지 책임지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신창전기

노사 화합·단결로 고비 때도 순항

경기도 안산에 본사를 둔 신창전기는 2008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메이커'를 비전으로 삼았다. 올해는 세계시장 점유율 5위에서 3위권 내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달성하고자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확보로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처럼 희망찬 미래를 키워나가는 오늘날의 신창전기를 일궈낸 원동력은 제2차 오일쇼크와 외환위기라는 고난 속에서 싹튼 노사 간 화합과 단결이다. 신창전기는 노조가 생긴 지 2년 만인 1989년부터 해마다 쟁의신고와 태업이 다반사로 벌어졌으나, 1995년 임금동결과 무분규 타결을 계기로 다시 예전의 노사화합 분위기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로 90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을 때도 노사는 임금과 복지부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고통을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상여금, 학자금 등을 반납해 위기를 이겨내고 회사를 살려냈다. 이후 신창전기의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해 2004년부터는 2천억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2008년 12월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 1월에는 매출이 50퍼센트 줄고, 8백10명의 직원이 휴업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규모 감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노사는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살려 다시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해 위기를 극복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의 일정 비율을 자진 반납하고 각종 복리후생비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단 한 명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 그 결과 회사는 연간 1백억원을 절감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혁신 등에 투입했다.

신창전기는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갈 때 성장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3분의 1 원칙'을 추구한다. 이 원칙은 이익을 3등분해 회사와 직원, 주주에게 각각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 직원은 자신의 직무에 맞는 자기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노사화합과 학습문화를 다져나가고 있다.

신창전기 박종남 이사는 "지난해 노사합의는 일주일 만에 단 3차례의 노사협의회를 거쳐 이뤄졌다"며 "노조위원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고용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실시해온 교육의 영향이 컸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노조위원장은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노사화합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조합원들을 설득해 '고용안전 최우선, 일정 부분 고통분담'이라는 양보교섭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노사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여행업체 모두투어네트워크는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여행시장의 경기가 악화되자 대표이사 이하 임원들은 그해 8월부터 급여의 50퍼센트를 삭감하고, 과장급 이상은 9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의 30~50퍼센트를 줄여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다.**

동국제강
경제위기에 노조는 임금동결, 회사는 고용보장

지난해 9월 노동부로부터 노사한누리상 단체부문상을 받은 동국제강은 1994년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16년 동안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가 먼저 임금동결을 선언하자 회사는 고용보장을 결의함과 동시에 경영진과 사무직의 연봉을 10퍼센트 반납하고,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추진해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했다.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3천억원의 적자를 낸 동

동아DB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 경북 포항시의 동국제강 근로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연휴도 반납한 채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동아DB

지난해 8월 모두투어네트워크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노사가 함께 벌인 사랑나눔 행사.
이 회사는 고통도 성과도 함께 나누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꽃피워 경영 악화의 위기를 극복했다.

동아DB

KT 직원 가족들이 자택 거실에서 IPTV를 통해
'집으로 찾아가는 사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국제강은 이러한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극적인 흑자 전환을 실현했다. 이와 함께 근무 체제를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개편해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3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거뒀다. 특히 지난해에는 올해 채용 예정자를 포함해 2008년의 2배에 달하는 1백5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상규 노조위원장은 "매월 한 번씩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회합이 노사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계기가 됐다"며 "안정된 노사화합 관계를 유지하려면 평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욕구를 충족시켜줄 방법을 찾아내 합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모두투어네트워크
임원 급여 50% 삭감·순환 무급 휴직으로 위기 이겨

8백7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여행업체 모두투어네트워크는 지난해 6월 상생의 노사문화를 꽃피운 공로로 노사한누리상을 받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노사협력을 통해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한 이 회사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으로 매출이 급감했을 때도 노사가 합의해 순환 무급 휴직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냈다.

어디 그뿐인가.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여행시장의 경기가 악화되자 대표이사 이하 임원들은 그해 8월부터 급여의 50퍼센트를 삭감하고, 과장급 이상은 9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의 30~50퍼센트를 줄여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다.

또한 여행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를 극복하고자 2008년 11월과 지난해 3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2차례의 양보교섭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순환 무급 휴직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고통분담으로 회사는 월 38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지난해 1분기에 비로소 흑자를 달성했다. 여기서 발생한 1억8천만원의 수익은 모든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금으로 균등하게 지급됐다.

홍기정 사장은 "기업은 노와 사가 같은 꿈을 꾸며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장 발전할 수 있다"며 "우리 회사는 고통을 함께 나눈 것처럼 성과도 함께 나눔으로써 노사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밝혔다.

대화창구 열어 신뢰와 화합… 회사·직원 모두 '윈윈'

이 밖에도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노사화합을 일궈낸 현대중공업과 금호피앤비화학,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다져온 포스코, 노사 합의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출한 YK스틸, 성숙한 노사협력 시스템으로 기업경쟁력을 극대화한 삼정피앤에이 등이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어가는 모범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뢰와 화합을 중시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는 껄끄럽던 사내 소통의 길도 터줬다.

삼성전자는 사내 매체에 정보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LG전자는 최고경영자(CEO)와 사원들 간의 장시간 토론으로, KT는 직원 집에 사내 방송을 연결해 사내 소통에 힘쓰고 있다. 또 SK텔레콤은 직원들과의 원활한 의견 교환을 위해 인트라넷에 소통게시판을 마련했다.

LG전자 남용 부회장은 최근 1980년 이후 태어난 사원과 대리급 직원들을 따로 만나 3시간 동안 토론을 벌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준수 LG전자 노조위원장은 "사내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딱딱하고 수직적이던 조직 분위기가 개방적, 수평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흡족해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예지은 수석연구원은 "사내 소통 강화는 신세대와 여성 등 기업 내 다양해진 인력 구성원들의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G 글·김지영 기자

공기업도 나눔경영 시대

공기업 노사문화 이렇게 변했다

'철밥통'의 오명을 쓴 공기업이 달라지고 있다. 2008년 8월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프로젝트를 계기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건실한 공공기관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기업 노사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공기업은 공익성 추구와 수익성 확보를 함께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기업의 노사관계는 얼핏 사기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회적 공공성, 정부와의 관계 등 공공 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기업 노사관계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의사결정 단계가 복잡하고 사기업과 달리 기관장의 잦은 교체로 장기적인 경영계획이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도 많다. 따라서 공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문화의 상생과 화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렇듯 노사가 함께 가는 공기업의 '모범사례'들을 소개한다.

서울메트로
파업철 이미지 깨고 '나눔경영'으로

서울메트로가 철도 공기업의 대표적인 노사화합 모델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파업철' '지옥철'이라는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깨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서울메트로가 노사화합을 상징하는 사업장으로 바뀐 것은 과거 노사관계의 교훈을 통해 파업의 악순환은 노사 모두의 패배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004년 7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파업 후 서울메트로는 노사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후 노사관계 원칙을 정립하고 투쟁 위주의 운영기조를 탈피했다. 특히 2007년 취임한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은 "노사화합이 21세기 공기업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노사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 '나눔경영'을 도입했다. 직원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기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는 취지였다. 2008년 봉사 마일리지 제도, 매칭 그랜트 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노사합동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홀몸노인을 위한 연탄배달, 시설 수용 어린이들을 위한 자장면 배

사진 |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는 노사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황영조(왼쪽) 등 옛 스포츠 스타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서울 은평천사원에 전달하기 위한 자장면을 만들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가을 노사 합동 등반대회를 열었다.

달, 저소득층 청소년 무료 음악교육 제공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 이웃을 돌보면서 노사 갈등의 골은 점차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노사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7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11월에는 '2009 노사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12월에는 13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200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과 4분기 노사협의를 전격 타결했다. 5년 연속 무분규 노사합의 타결이자 서울시 6개 투자 공공기관 중 가장 빠른 협상 타결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내 최초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때 놀랄 만한 노조 문화의 기틀을 세운 바 있다. 2006년 국내 최초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를 통합했고 비정규직 2백8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 바탕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애쓰는 노조와 경영진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있다. 이후 2008년을 기점으로 노사 워크숍, 특별노사협의회 운영, 1+8 런치온 미팅, 사내 전자결재시스템 내 'CEO 게시판' 운영 등 꾸준히 대화 채널을 열어 노사 간에 심도 있는 만남을 지속해왔다.

이렇게 노사 공동의 방향성을 정립한 자산관리공사는 노조가 단순히 직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 당사자임을 명확히 인식해 우호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능력·성과 위주 인사혁신제도 단행

한국농어촌공사는 고통분담형 노사화합을 이뤄낸 경영 선진화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2년 전 농어촌공사는 심각한 기로에 놓였다. 경영 선진화의 첫 단추인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 사측은 총정원의 15퍼센트에 달하는 8백44명의 인력과 부서조직 20퍼센트 감축을 추진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홍문표 사장은 급여의 50퍼센트를, 다른 임직원도 일부를 자진 반납, 총 86억원을 퇴직자 위로금으로 전달했다.

노사 간에 신뢰가 형성되면서 경영 선진화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주요 부서장의 83퍼센트를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에 이어 6월 공기업 최초로 노조의 인사 및 경영권 불개입 선언을 단체협상으로 체결했다. 또한 승진 심사 때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개방형 승진심사제도, 성과개선 대상자 관리제도 등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혁신제도도 단행됐다.

인사제도 쇄신은 노동생산성 증대로 이어졌다. 2009년 결산 기준 7백87억원의 흑자를 달성했고, 올해 예산도 50퍼센트나 증액했다. 제33회 국가생산성대회 대통령상 수상,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 최우수 기관 3년 연속 선정 등 외부평가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근로복지공단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선도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 중에서도 선진적인 노사 공동체문화를 확립한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산재보험 및 영세·취약근로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돕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 복지 개선에 앞장서며 노사관계 선진화에 힘쓰고 있다.

2년 연속 노동부 주최 노사 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 대상자였던 근로복지공단이 노사상생·협력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데는 사측의 의지와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 사내 자격인증제를 도입해 분야별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일하기 좋은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 양립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최초로 재택근무를 실시했으며,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활용해 업무 능률을 높였다.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삼아 퇴근시간을 오후 6시 30분으로 못 박기도 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4월 28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된 것.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의 통합이라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지만, 이제껏 노사가 화합해왔던 대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G

글·김민지 기자

포럼·협의회·파트너십·산업 평화상…

대화로 풀어가니 기업 '쑥쑥'

우리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나 고용 사정은 여전히 어렵고, 노사관계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 경제와 고용이 어려웠던 지난해에 지역 노사민정의 협력은 큰 힘이 돼줬다.

인터넷에 온갖 종류의 '인증샷'이 남발되면서 '인증'의 의미가 왜곡되기도 하지만, 인증이란 어떠한 사물이나 사안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지녔다. 지금 경기도에선 전국 최초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도입돼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경제난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해 각종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를 사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11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9 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 사례' 가운데 경기도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내역 중 일부다. 대통령 표창은 경기도 외에 충북, 경기 부천, 전남 순천 등 모두 4곳, 국무총리 표창은 부산, 인천, 전남, 광주 광산구, 울산 북구, 충북 충주 등 6곳, 노동부 장관 표창은 제주, 강원 속초 등 2곳이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사람 중심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해 노사정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노사협력은 물론 고용 창출과 안정 효과까지 거뒀다. 또 지난해 5월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 10곳을 대상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했는데, 10곳 중 9곳이 민주노총 소속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충북도 '노사정 포럼'으로 노사평화지대 구축

충북은 '노사평화지대' 구축이 주목을 받았다. 노사민정 협력을 지원하는 순수 민간단체인 '노사정 포럼'이 노사대표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개별사업장(5백19개소)에서도 노사민정 대표가 모여 합의를 도출하는 등 '노사평화지대'를 폭넓게 구축했다. 특히 일자리를 잃은 경영자 회생 교육과 실직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고용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0년간 노사민정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노사갈등 해소는 물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모델'을 구축한 점이 두드러졌다. 노사민정 파트너십 체계를 중층적으로 구성해 택시업종협의회와 공공부문협의회, 기업발전협의회를 따로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업종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도모했다.

순천시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05년 이후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노사민정 협력으로 원만한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부산은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노사 안정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고용촉진지구'를 시범 운영 중이다. 고용 파트너십 포럼, 부산 인적자원개발원, 지역 대학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해 1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를 공포해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해 약 10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전남은 2006년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노사정 공동 산업평화를 선언하고 실천했다. 또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잡스쿨(Job School)'을 운영하고 지역 인재들의 지역기업 채용을 촉진하고 있다.**

울산 북구청이 지난해 10월 처음 마련한 '근로자와 함께하는 별밤 콘서트'에 참석한 근로자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동아DB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회의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참고 일치를 보존하십시오"라는 정진석 추기경의 말씀이 거울에 쓰여 있다. 각 지역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갈등 해소와 고용창출 역할까지 맡고 있다.

전남은 2006년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4년 연속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을 한 지역이다. 매년 '산업평화상' 시상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주력하고,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노사정 공동 산업평화를 선언하고 실천했다. 또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잡스쿨(Job School)'을 운영하고 지역 인재들의 지역기업 채용을 촉진하고 있다.

울산 북구도 2006년 12월부터 노사정구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해 공공 부문 일자리 나누기 추진 방안, 노사정구민협의회 체계정비 의결 등 사업의 실행단계에서부터 노사민정 간 논의를 통해 추진해오고 있다. 울산 북구는 지난해 10월 처음 '근로자와 함께하는 별밤 콘서트'를 개최해 기업체와 근로자 간 화합의 무대를 연출하며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예술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노사갈등 해결 공로

광주 광산구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금호타이어 노사갈등 해결에 힘쓴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199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성된 노사정협의회를 주축으로 지역기업 성장과 고용안정 간의 조화에 주력하고 있다. 충주는 지난해 8월 노사민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체의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에 43개 기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장 단위까지 노사협력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제주는 오리엔탈호텔 노사 갈등 때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주도로 노사 간 의견을 조정하는 등 갈등 해결에 적극적이며 속초시의 경우 '지금 여기(Now-Here)' 운동을 전개해 찾아가는 창업·자영업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도 노사정협의회가 있었지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고용 문제까지 포괄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구성돼 지금과 같은 지역 단위 '거버넌스(국정관리 체계)'로 발전한 것은 정부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부터다.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노사정의 지역 파트너십이 노동시장 정책, 경제발전, 삶의 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이행의 원활성과 효율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2007년).

노동부 김왕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는 상생과 협력을 내세운 지역 노사민정의 노력이 있었다"며 "최근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용이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지역 노사민정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노조 설립에 배신감 VS 노조 무시한다

부산의 H학원은 웅변학원으로 시작해 입시전문학원으로 성장했다.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주변 아파트단지에 퍼지면서 학원생이 2백50명에 달할 만큼 규모도 커졌지만, 노조 설립 3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노사 간 대화 부족이 문제였다.

학원장은 가족같이 생각했던 강사들이 노조를 설립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고, 반면 노조는 학원장이 노조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했다. 단체교섭 일정이 학원생들의 중간고사 기간과 겹치자 학원장은 단체교섭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했다. 학원장은 교섭에 불참하고 무자격 강사이던 두 명의 조합원에 대해 해고 예고를 통보했고, 노조는 파업을 결의했다. 해고 예고를 하게 된 이유를 노조 측에 말해주기만 해도 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으나 노사는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

노사 공방이 계속되자 학원생의 수는 계속 줄어들었고 결국 학원 측은 폐업을 결정했다. 폐업 후 학원장은 노조의 고발로 세무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다. 강사들은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노사관계에서도 대화만큼 중요한 게 없다. 학원장은 강사들이 학원 사정을 다 알고 있으려니 하고 말하지 않았고, 강사들은 학원은 성장하는데 근로조건은 달라지는 게 없다는 불만을 가졌던 게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다.

회사 이윤 추구부터 VS 근로자 권익부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듯이 근로자도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자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노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상시근로자 32명과 25대의 택시를 보유한 강원도의 D운수는 1일 사납금 10만2천원을 모두 채워야 월 55만3천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했고, 상여금을 월급으로 쪼개주면서 근무일수가 부족하면 삭감했다. 이틀에 한 번 쉬는 휴무에도 회사에 나와 세차를 해야 하는 등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타협·대화 없이 각자 입장만…
그들은 결국 문 닫았다

건전한 노사관계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용자,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에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은 자리에는 패자만이 있을 뿐이다.

커졌다.

노조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가감누진 성과급형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무 형태도 노조는 1일 2교대로 바꾸자고 했으나 사측은 인력난과 재정 감소를 이유로 거절했다.

결국 노조는 파업과 농성에 돌입했고, 사측은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노조원 15명에 대한 차량 운행을 금지했다. 노사는 계속 협상을 시도했지만 타협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회사의 폐업으로 막을 내렸다. 회사 내부 사정보다는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교섭에 임한 노조와 자신만의 이윤 추구로 근로자의 권익을 외면했던 사업주가 빚어낸 불협화음이었다.

알려서 좋을 게 없다 VS 회사 말 안 믿고 '투쟁'

노사관계에서는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 정보 공유는 노사 신뢰 형성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대구 소재 G공사는 정보 공유가 안 돼 노사의 불신이 파국으로 치달은 사례를 보여준다. 이 회사는 컴퓨터 모니터 및 에어컨 부품을 A전자에 납품하고 자동차 부품을 미국 등지에 수출하는 우량기업이었으나, 노조와 신뢰를 쌓지 못해 무너졌다.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노사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와중에 회사가 제2공장을 설립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근로자들은 노조가 있는 현재의 공장을 폐쇄하고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 회사는 제2공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회사의 말을 믿지 않고 연장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때마침 회사가 노조사무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노조를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사장이 노조원에게 멱살을 잡혔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사장이 잠적하자 A전자는 거래단절 의사를 표명했고, 사장이 잠적한 지 3일 만에 회사는 7억9천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자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장에겐 더 이상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노조는 회사의 고의부도, 노조탄압, 공금횡령 등을 내세우며 투쟁에 들어갔고 사장이 자수하고 구속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승자는 없었다.

적자라서 구조조정 VS 힘들다는 말은 거짓말

경기도의 J출판인쇄 D공장은 월 매출액이 1억원이었으나 월 지출이 1억4천만원에 달해 매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다. 경영난을 고민하던 회사는 노조에 인력 구조조정을 통보했고, 그동안 원칙 없는 구조조정을 겪었던 노조는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회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여겼다.

회사는 노조원 13명이 정리해고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자 그들을 해고하고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회사가 위장폐업을 했다며 노숙투쟁을 벌였다. 1백50여 일의 노숙투쟁은 노사가 고용승계 보장과 퇴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에 합의함으로써 끝났지만 노사 모두 손실이 컸다.

D공장의 폐쇄는 노사가 회사의 장래 등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아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조는 경영 현실을 감안한 인력 구조조정보다 설비 증설을 주장했고 회사는 노조를 협상이 안 되는 상대로 여겼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언제든지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 서로를 동반자가 아니라 견제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G

정리 · 이혜련 기자

일러스트 · 남동윤

노사 파트너십 신청하면 소요비용 지원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잘되기 위한 요체는 노사 파트너십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건강한 노사문화를 확산하고 노사 공동의 이익을 높이는 것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랜드리테일은 2007년부터 비정규직법의 시행과 전환배치 문제로 4백34일간 파업사태를 겪은 후 2008년 8월 29일 3년간 무파업을 선언하며 노사갈등을 끝냈다. 하지만 2년여의 파업 후유증으로 노사 간, 직원 간 불신이 팽배해 노사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는 게 시급했다.

노사는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2009년 8월 13일~2012년 3월 31일 동안의 선단체협약 체결, 취업규칙 단일화·성과연봉제 확산·근무시간 단축 등 신인사제도 도입, 계산대 의자 설치 등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46명의 정규직 전환 등의 성과를 거뒀다.

거제시설관리공단도 3년간의 지속적인 노사갈등으로 조직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직원의 사기가 떨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는 지난해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노사관계 및 조직 진단, 우수기업 벤치마킹, 직무 체험, 소망공원 조성, 고객만족포럼 등을 시행했다. 이런 활동 뒤 경영수입은 6.7퍼센트, 이용객은 8.6퍼센트 늘어났다. 또 3억1백96만4천원의 경비 절감, 신규사업 추가 수탁 등의 경영성과와 비정규직 15명에 대한 무기근로계약 추진 등 고용안정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잘되려면 노사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노사 파트너십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말한다. 정부는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노사문화를 확산하고 노사 공동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각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10가지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노사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동아DB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근로자 참여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1 | 정보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

노사가 정보를 공유하면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동반자 의식으로 생산력이 높아지며 경영이 합리화되는 효과가 있다. 근로자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경영의 파트너로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근로자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기업 경영정보, 근로조건, 최근 경기현황, 정부 정책, 기업의 미래 비전 등을 설명회, 소그룹 미팅, 노사협의회, 인터넷을 활용해 공유한다.

2 | 고충처리 시스템 활성화 프로그램

일을 하다 보면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불만이나 애로사항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는 노사 간 집단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불만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고충처리 시스템 활성화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고충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또는 위계적인 경영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노사 공동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관에 의해 민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증진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구성원 간에 행해지는 정보 교류 행위로,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노사가 함께 특별팀을 구성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사내 공모하는 것도 방법이다.

4 | 참여적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오늘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근로자 참여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참여적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면 노사공동교육, 노사화합행사 등을 통해 신뢰와 협력관계를 만들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 노사공동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노사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장근무체험이나 현장방문행사 등을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5 | 노사화합 공동선언 프로그램

노사화합 공동선언 프로그램은 노사가 상생관계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역할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 이를 대내외에 공식화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정경택 기자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참조하세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를 가장 빨리 헤쳐나올 수 있었던 데는 노사의 나눔과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간 공동 대응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노사 공동이익 증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노사가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노사협의회다. 하지만 노사협의회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 전담조직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해 노사협의회를 노사협력의 장으로 널리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법령 해석뿐 아니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평가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소개해 실무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노사협의회 운영의 노하우를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로, 참여와 협력의 원칙, 노사 공동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노동조합과의 분립 원칙이 적용된다. 참여와 협력의 원칙은 노사협의회가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노사공동의 원칙에 의해 협의회의 노사 동수 구성, 선거를 통한 의장 선출 등 어느 일방이 주도하지 않고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경영자는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시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이 결국 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근로자는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기업경영에 기여하고 근로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인식이 신의성실 원칙의 바탕이 된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는 별개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공동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인정되고 있는 노조의 역할과 기능은 제약받지 않는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법률적 적용을 떠나 노사협의회를 노사 간 의사소통의 핵심기구로 활용하면 생산성 향상, 작업장 혁신, 근무제도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노사 간의 협조적 파트너십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므로 노사협력 공동추진단을 구성하는 게 필수다. 노사화합 공동선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 상호인정, 존중, 투명경영, 협력임을 명심하고 기업 경쟁력 확보와 조합원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6 | 생산적 교섭관계 구축 프로그램

협력교섭을 위한 노사의 자세와 효율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체교섭 절차를 단계별로 매뉴얼화하는 것이다. 먼저 노사 각자가 선결과제를 정해 정보를 수집하고 교섭항목을 선정하는 등 준비를 한 다음 교섭일정, 교섭위원, 교섭장소, 진행절차, 협약서 작성절차 등을 논의한 후 본교섭에 들어간다. 노사 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단체 협약서를 작성해 서명 날인하면 교섭이 완료된다.

7 | 자율적 협상문화를 위한 변화관리 프로그램

대립적이던 협상문화를 개선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율적 협상문화를 구축하자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변화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 대표가 현 노사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노사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석해 변화관리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8 | 정서적 지원을 통한 조직몰입도 증대 프로그램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와 갈등 요인을 심리적 접근법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조직 내 스트레스 수준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한다. 이때 노사에서 일정한 인원을 분배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스트레스와 갈등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는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심리치료이기 때문에 웃음치료 기법, 개인 안식일, 스트레스 및 갈등해소 지원 프로그램,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다.

9 | 노사 공동 참여를 통한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일하기 좋은 기업이란 경영진에 대한 신뢰, 업무와 회사에 대한 자부심, 직장 동료들 간의 유대감이 깊은 일터다.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현장 격려활동, 경영정보 공유 등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10 |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소속감 고취 프로그램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재량을 늘리는 근로시간 재배치, 가족지원 프로그램, 자기계발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제도 등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사의 공동 비전을 세우고 공유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하는 공동체적 노사문화를 창출한다. G

글 · 이혜련 기자

노사화합 응원메시지 올려주세요

노동부는 '노사문화 선진화 원년'을 맞아 건강한 노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나섰다. 개설 1주년을 맞은 '노사문화 선진화'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고 노사화합 국민응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노사문화 선진화 홈페이지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마당'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알림마당'이 열린다. 특히 알림마당에는 노사문화 선진화 정책과 노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엮어서 발간하는 웹진 '함께 가는 勞랑使랑'이 업데이트되며, 등록을 신청하면 누구나 웹진을 받아볼 수 있다.

새로 생긴 '우수사례마당'도 눈에 띈다. 생산적 교섭, 작업장 혁신,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노사 한누리상 등 노사문화와 관련된 우수 사례를 분야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이벤트를 신설한 '소통마당'에서는 노사협력·양보교섭을 통해 노사문화 선진화에 앞장선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노사 한누리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소통마당에서는 홈페이지 개편 기념으로 5월 24일까지 노사화합 응원 UCC 공모전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노사화합 응원 UCC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창작 응원가, 연주, 공연, 춤, 응원 퍼포먼스 등 노사화합 응원 메시지를 담은 UCC 영상물을 노사문화 선진화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창의성, 주제 적합성, 기술 및 구성의 완성도, 재미 등을 심사하며 본선 진출팀의 공연 및 최종 수상자 시상은 6월 12일 야외행사로 개최되는 '2010 노사화합 국민응원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1팀에게는 노동부 장관 표창과 상금 3백만원을 지급하고,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3팀에게도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또 '노사화합 응원 한 줄 달기' '노사합동 월드컵 응원계획 올리기' 등의 노사화합 행운 이벤트에도 넷북,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노사문화 선진화 홈페이지 www.nosabravo.or.kr

선진국의 노사관계는 어떨까?

노조 조직 약화 추세… 사회협약 도입

위기(危機)는 글자 그대로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보다 앞서 제조업의 침체와 경제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은 노사갈등을 거쳐 타협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켰다. 한때 위기를 겪은 외국 기업들도 안정적 노사문화를 토대로 세계무대에서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EPA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는 노사 신뢰 속에 고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면서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였다. 독일 브레멘의 벤츠 생산라인.

"지난 30년간 선진국들의 노동조합 운동은 대체로 퇴조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노조보다는 정부나 사용자의 주도권이 강화됐다. 경제위기를 겪으며 노사관계에서 전투성이 많이 약화됐고, 비정규직을 비롯해 취약 노동자층이 많은 나라의 경우 기존 노사관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노사관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다. 지난해 11월 노동부에 제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선진국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등 변화 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영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 7개국을 중심으로 30년간의 노사관계 변화를 추적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에는 권위 있는 국내외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책임 연구를 맡고, 〈유럽의 노동과 고용〉이라는 책을 펴내는 등 노사관계 연구 권위자인 피터 크레시 영국 배스대학 교수, 스페인의 홀-뎃레브 퀼러 오비도대학 교수, 이탈리아의 볼커 텔요한 경제사회연구소(IRES)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노동조합 운동 퇴조현상 외에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의 약화, 정부·노동조합·사용자단체(노사정)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강화, 비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자층의 등장에 따른 노조 대표성의 위기 등을 거론했다.

우선 산별노조와 산별협약의 전통이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별 교섭이 더 중요해지는 등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일반적이다. 노사 자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제도가 강화되는 동시에 사회협약도 강화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프랑스는 90퍼센트 이상의 기업이 임금인하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여 오히려 노동비용이 상승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여 청년 실업자 고용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으나 부담만 늘고 있다는 평가다.

처럼 대립적 노사관계의 전통이 강한 경우 노사분규의 중재와 조정을 위한 국가 개입이 강화됐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이 다양하게 도입됐다. 최근에는 노사정 외의 사회단체들도 사회협약에 합류하는 추세다.

노사관계에서 대표성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조 가입률이 낮아지면서 노조 조직이 약화되고 고용 형태나 국적, 노동운동 노선이 다른 근로자 계층이 등장하면서 대표성이 의심받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자본주의 발전 속도에 따라 나라별로 세부 특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 보고서는 노조관계의 유형을 대립과 협력 구도에 따라 영미형(영국과 미국), 혼합형(호주와 네덜란드), 라틴형(스페인과 이탈리아) 모델로 분류했다.

자본주의 선발주자인 영미형에선 지난 30년간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와 서비스 산업의 강화로 기존 제조업 중심의 노사관계 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노조의 자치에 맡기기보다는 법치와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영국에서는 18~35세 세대가 과거 전후 세대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비율이 낮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세계화에 따라 국가 차원이 아닌 전 세계적 노사관계 기준을 수립해야 할지 논의 중이다.

EPA

프랑스는 90퍼센트의 기업이 임금인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린 실패 사례로 꼽힌다. 사진은 2007년 프랑스의 공공노조 파업.

일찌감치 1970년대부터 제조업의 생산성 저하와 공장 해외 이전으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겪은 미국은 노조가 임금인하에 합의하는 등 양보교섭이 정착되고 있다. 노사협의 때는 임금,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되 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제한적 참여 등 실리주의에 의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권위주의 통치를 경험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뒤늦게 노사관계가 형성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라틴형의 경우는 노사관계에 갈등 요소가 많았다. 그러다가 유럽연합(EU) 통합을 기점으로 유럽 차원의 노사관계 규칙을 찾아가기 위해 노사정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호주와 네덜란드 등 혼합형 모델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합의하고 실천해왔다. 정부의 조정과 개입을 허용하면서 노조 자치와 법치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호주에서는 고용안정을 확보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영국·호주·이탈리아 등 7개국 연구보고서 나와

네덜란드 정부는 노동참여위원회라는 기구를 설립해 정책적 대안을 찾는 모범 사례다. 2008년 이 위원회에서 내놓은 대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더 오랫동안 고용안정을 누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취업기술 지원, 실업 시 보조받을 수 있는 노동기금 적립 외에도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등 고령화에도 대비해왔다.

최근 일본의 노사관계는 이들 모델과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급격한 경제위기, 완전고용 신화의 붕괴, 보수 자민당 장기 집권의 종식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다. 매년 임금교섭의 분수령이던 춘투(春鬪)는 크게 약화됐고, 노동조합 가입률이 떨어지면서 교섭력도 미약해졌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파견법 강화, 최저임금 상승, 고용보험 확대 등을 추진하며 사회협약을 독려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90년대 후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35시간 노동법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프랑스는 90퍼센트 이상의 기업이 임금인하 없이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여 오히려 노동비용이 상승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여 청년 실업자 고용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으나 이 역시 예상을 빗나가면서 기업과 정부 부담만 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선진국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은 한국도 참고할 만하다"고 말한다. 그는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위기에 봉착한 이들 선진국은 기존 노사관계 의사결정 방식 외에도 사회협약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도 노조 자치, 법치, 노사정 협약 등을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협력의 과실은 달콤하고 갈등의 대가는 너무 쓰다

〈한국 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 국내외 우수 사례 한 권에

고려대 경영학과 김동원 교수는 2008년 말 펴낸 〈한국 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 서문에서 "세계 경제위기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참여와 협력의 과실은 더욱 달콤하고, 노사갈등의 대가는 더욱 쓴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은 노사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노사협력 지침서로 이 책을 펴낸다고 썼다. 이 책에는 노사관계가 좋은 국내 기업 사례뿐 아니라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노사 협력으로 고성과 작업조직(High Performance Work Organization)으로 우뚝 선 해외 기업의 사례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980년대 중반 경쟁 업체의 추격으로 경영위기를 겪은 IBM은 대규모 감원 이후 인적 자원 개발에 주력해 재도약에 성공한 경우다. 사진은 미국 뉴욕 IBM 본사.

연합

메르세데스 벤츠 | 1888년 설립된 벤츠사(社)는 1970년대 후반까지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두 차례 석유위기 이후 경영위기에 봉착했으며, 1998년에는 미국 크라이슬러사와 인수합병을 통해 재도약을 시도했다. 이후 벤츠사의 노사관계는 '신뢰 속의 고부가 창출' 실현을 최우선 전략으로 밀었다. 즉 종업원들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고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 이 전략은 맞아떨어졌다. 종업원들이 창의성과 경험을 생산현장에서 충분히 발휘하면서 벤츠사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이 덩달아 높아졌다. 그 결과 종업원들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용이 안정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었다.

휼렛패커드 | 휼렛패커드는 '감원 없는 회사'와 '인본주의 경영'의 모범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39년 설립돼 2002년 기준 1백78개국에 약 14만명의 종업원을 고용한 초우량 기업인 휼렛패커드는 무노조 원칙을 추구하면서도 노사 간 상생을 추구해왔다. 이 회사는 1970년대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10퍼센트 인원 감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업무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수익성이 높은 정부 사업이라고 해도 해고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사업 진출을 포기하는 등 'HP Way'라고 대표되는 인본주의 경영철학을 실천해 노사 간에 깊은 신뢰를 쌓았다. 이 회사는 개인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을 다 같이 존중하며, 종업원 주식 매입 기회 제공, 회사 내부 인재의 고위직 등용,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 등 인간존중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제록스 | 문서와 사무용품 전문기업인 제록스는 2008년 현재 1백60개국에서 약 5만8천명의 종업원을 고용한 글로벌 기업. 미국 정부가 수여한 품질대상, 20개국에서 수여한 25개의 품질 관련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등 품질혁신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이 같은 품질혁신은 노사가 서로를 배려할 뿐 아니라 경영자 측에서 1980년대부터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다양하게 허용한 결과다. 최고경영자와 노조위원장이 만나는 '노사 정상회의'뿐 아니라 지역 본부장과 공장 관리자가 만나 의논하는 기획위원회, 사업 부문별 소위원회, 문제 해결팀 등이 수시로 모여 품질 향상을 논의한다.

코닝 | 1백50여 년 전에 창업한 코닝은 유리제품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우량기업이다. 1980년대 중반 매출액과 순이익의 하락 등 경영위기를 겪었지만, 노사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극복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 다시 미국의 우량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노사 동반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노사운영위원회는 회사가 새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때 근로자가 적극 참여하는 기구다. 노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은 기업의 목표공유위원회에 제출해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알프스전기 | 일본의 알프스전기는 세계 최대 전자부품 제조기업이다. 알프스전기는 1948년 설립된 이래 무노조 사업장으로 무분규 기록을 갖고 있다. 한때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치달았으나 1970년대 '노동위원회'를 설치해 상생적 노사관계의 전통을 세웠다. 노동위원회는 과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한 전 사원이 참여해 임금, 근로시간, 휴가, 산업안전, 복지 등을 협의한다.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경영정보를 적극 알리고, 정기적으로 궁금한 경영 사안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IBM | 1911년 설립된 IBM은 '동기 유발' 요소를 강조하는 우량기업이다. 2007년 현재 1백64개국에서 약 38만명이 일하고 있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이기도 하다. IBM도 1980년대 중반 애플컴퓨터사, 선마이크로사 등 경쟁 업체의 추격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었다. 2000년 대규모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IBM은 이후 정보기술(IT) 산업 인력의 특성을 고려해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추진해왔다. 차별적 보상, 리더십 개발, 학습 기회 부여와 함께 업무와 가정의 균형을 위해 종업원의 40퍼센트를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동근무처 제도를 도입했다.

행남자기는 68년간 단 한 차례도 노사분규가 없었다. 회사가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분위기다 보니 2대째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겨날 정도다.

노사 협력해야 일자리 늘어난다

우리 국민들은 고용안정을 협력적 노사관계의 필수 요소로 꼽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고의 정책 과제로 세우고, 대통령이 매달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와 함께 구인·구직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등 고용안정에 힘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에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매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미시적, 거시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조직을 고용업무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명칭도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밝힌 주제 발표 내용 중 일부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지난해 2월 주요 경제주체들이 일자리 나누기를 약속한 노사민정 대타협,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한국 정부의 다양한 고용정책을 소개해 참가국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고용안정은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이끌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2008년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이 실시한 '노사관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노사 간 양보와 배려(48.1퍼센트), 고용안정 보장 등 사측의 노력(32.3퍼센트)을 꼽았다.

최근 타결된 금호타이어 임금 및 단체협상은 위크아웃 상태라는 특수 상황에서 정리해고 없이 노사 합의를 이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4월 22일 △기본급 삭감 △워크아웃 기간 임금 동결 △상여금 2백 퍼센트 반납 △복리후생 축소에 합의했으며, 이 같은 노조 쪽 양보에 화답하여 1백89명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한 회사 측 결단이 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비전을 세우고 1월부터 매달 1회 대통령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부의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왔다. 단기적으로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구조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

구직 대상자별 정부 주관 구인·구직 안내

구분	내용
전체	국가고용정보망 워크넷(공공 부문 합동) www.work.go.kr 직업전문방송 TV워크넷(노동부) 위성방송, IPTV, 지역케이블 및 인터넷 www.tvworknet.or.kr
청년	으라차차차 힘내라 청년아(노동부) www.chachacha.go.kr
대졸자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 잡영(노동부) www.jobyoung.work.go.kr
여성	위민넷(여성가족부) www.women.go.kr
8개 직종	잡콜(노동부) 전화 1544-1919 또는 워크넷 등록 (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상점판매원, 신문·우유 등 배달원, 주차관리원, 세차원)
기능인력 또는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	잡월드(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www.ibkjob.co.kr

정부가 중소기업 리크루팅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향후 고용률 상승에 청신호가 보이지만, 고학력 청년층의 지속적 증가는 적신호다.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학교와 기업, 지역사회와 직업서비스 기관 간의 커리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트는 구인·구직 데이타베이스(DB)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민간과 기업의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고용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개선, 세제 지원, 규제 완화와 함께 임금과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25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고용률 60퍼센트를 달성할 계획이다.

최근 고용률은 경기회복과 기업의 인력수요 확대에 따라 2월 56.6퍼센트에 이어 3월 57.8퍼센트로 상승 추세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고용회복세를 지켜나가기 위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가 필수 과제"라고 강조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의 99.9퍼센트, 고용의 89퍼센트를 차지하므로 이들 중소기업의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전한 노사관계 위해 양보·배려해야

정부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워크넷, 잡영, 잡콜 등 구인 대상별, 구직 기업별 정보를 세분화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표 참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워크넷은 80만명에 달하는 대졸·전문계고 졸업자 구직DB 외에 취업 애로계층 DB까지 확대 구축하고 있다.

또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한다. 노동부는 구직 대상을 세분화해 청년 일자리, 대졸자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원, 경비원 등 8개 직종 구직 희망자들이 전화를 걸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잡콜(Job Call) 서비스도 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리크루팅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향후 고용률 상승에 청신호가 보이지만, 고학력 청년층의 지속적 증가는 적신호"라면서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학교와 기업, 지역사회와 직업서비스 기관 간의 커리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천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마치고 검색 프로그램 업체 시맨틱스 직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노사분규 이후 총고용 6.2% 감소

고용안정은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만드는 초석이다. 역으로 노사협력은 고용증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뉴거버넌스연구센터에 의뢰해 삼정피앤에이, LG이노텍, 대구의료원, 신한은행 등 노사협력 우수 기업 4곳을 조사한 결과 종업원 증가율이 0.226퍼센트 더 높았으며, 임금교섭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금융위기로 빚어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한국노총, 한국경총, 정부와 민간 부문 4주체가 일자리 나누기와 유지 등 노사민정 협력을 선언한 곳이다.

반면 노사분규는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거버넌스연구센터가 2006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노사분규가 일어난 사업체 398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고용 인원은 파업 후에 6.2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에서 파업 전 3천4백80개의 일자리가 생긴 반면, 사업체 폐업이나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2천6백8개다. 순창출 일자리가 8백72개인 셈이다. 이에 비해 파업 후에는 창출 일자리가 2천6백21개, 소멸 일자리는 9천48개로 전체적으로 6천4백27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파업 후 일자리가 소멸한 원인은 사업체 축소, 폐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업 후 폐업과 휴업을 하게 된 작업장의 경우 절반 이상(50.7퍼센트) 순고용 성장률이 줄어들었다. 파업 후 이직률은 큰 폭으로 증가해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책임을 맡은 성균관대 경제학부 조준모 교수는 "양보교섭 등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이라며 "노사가 협력적일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높으며, 노동생산성도 높다는 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건국·근대화·경제성장… 대학생들, 대한민국을 다시 보다

교수와 학생의 16주간 사회학 공방… 토론 결과 모아 책으로 출간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자본주의 질서를 최초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공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 아래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재벌에 대한 특혜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강의를 들은 20대들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쟁점을 재해석하는 책을 펴냈다.

조선일보

책을 펴낸 연세대 학생들은 류석춘 교수의 '발전사회학'을 수강한 후 한국 현대사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토론을 하면서 놀랐던 것은 나 자신은 좌파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좌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더군다나 그동안 좌파의 이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좌파가 아니라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다. 그동안 배워왔던 역사가 북한에서 주장하는 역사의 흐름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2008년 가을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발전사회학' 강의에 참여한 연세대 경영학과 강의철 학생은 학기말 리포트에 이렇게 적었다. 법학과 박정헌 학생은 강의를 수강한 뒤 자신의 이념 지향이 바뀌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필자는 스스로를 좌파로 생각해왔다. 이는 IMF체제 당시 필자의 가정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이 결정적이었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 노무현 정권 초기까지 표출됐던 사회 갈등에서 진보 담론이 실천한 몇몇 운동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수업을 듣고 난 후 필자의 정체성은 중도 우파 정도에 있는 듯하다. 이는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필자는 중도 우파였다고 생각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국의 대표적 보수학자 중 한 사람인 류 교수가 강의를 개설한 2008년 가을은 광우병 촛불시위가 한바탕 대한민국을 휩쓸고 난 직후였다. 류 교수는 한국 현대사를 직시하는 강의를 개설하고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논전(論戰)'을 벌이기로 작정했다.

"좌파 이론인 줄 알았는데 北 이론… 깜짝 놀랐죠"

진정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인가. 이승만은 단독정부를 수립해 한반도의 분단을 초

래한 독재자인가. 박정희는 권력욕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인권을 탄압한 독재의 화신인가. 재벌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통해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가져온 주범일 뿐인가.

이 같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쟁점에 대해 류 교수와 강의에 참여한 43명의 학생들은 매주 열띤 논쟁을 벌였다. 학생들은 10명씩 4개 조로 나눠 매주 일요일 밤 10시부터 월요일 새벽 1시까지 교내 인터넷망에서 토론 주제에 대해 '사이버 토론'을 하고, 이를 정리해 강의실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사이버 토론에서 각 조별로 매주 2백 개의 글을 쓰며 논쟁댓글을 올렸다. 한 학생당 매주 약 20개의 글을 쓴 셈이다. 류 교수는 매주 올라온 8백 개의 글을 읽고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다시 맞붙었다. 주요 텍스트는 고(故)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의 〈건국과 부국〉,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의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신장섭·장하준 교수의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등이었다.

처음에는 논쟁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과 남한은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비교하느냐"고 따지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나서 "똑같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남한과 북한이 왜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류 교수는 "의견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사실(Fact)'에 입각해 근거를 댈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문헌을 찾아 읽었다.

"재벌 특혜는 '더 나은 발전' 위한 측면도"

최근 출간된 〈대학생들, 대한민국을 다시 보다〉(북마크)는 16주간 펼쳐진 이 같은 '전쟁'의 결과물이다. 강의에 참여한 학생 중 15명의 학기말 리포트를 담았다. 전문 연구자의 논리 정연한 논문은 아니지만,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대학생들의 대한민국관(觀)이 그대로 드러나는 충실한 보고서인 셈이다.

지난 4월 13일 연세대에서 필자로 참여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생각한 대한민국관을 들을 수 있었다. 국문학과 한영익 학생은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과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만으로 한국 현대사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오다가 '아, 그렇게 단순히 이야기할 것은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큰 수확"이라고 했다. 사회학과 이근평 학생은 "보수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왔지만 주위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를 꺼렸다. 이제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책에서 학생들은 평소 자신이 가졌던 의견과 수업을 들으며 느낀 경험을 진솔하게 썼다. 한영익 학생은 "이승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를 최초로 선택한 점에서 박정희보다 한국의 현대사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썼다. 국문학과 박인용 학생은 "유신체제 아래 중화학공업과 조선에 대한 투자가 성공함에 따라 한국은 향후 수십 년에 이르는 경제

>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과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만으로 한국 현대사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오다가 수업에서 책과 논문들을 읽으며 '아, 그렇게 단순히 이야기할 것은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큰 수확이죠."**

성장을 뒷받침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재벌의 공과(功過)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게 됐다. 사회학과 김근홍 학생은 "재벌에 대한 국가의 특혜가 분명 존재했지만 이 특혜는 특혜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었으며, 재벌은 국가의 특혜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썼다.

류석춘 교수는 "인터넷과 강의실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강의를 진행하는 모험을 처음으로 실행했다"며 "학생들이 누구의 언어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진지하고 도전적으로 들려줘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

글·이한수(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책 출간 뒷담화

"책에 리포트 싣는 것 거부하는 학생도"

〈대학생들, 대한민국을 다시 보다〉는 2008년 가을 학기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발전사회학' 강의를 들은 학생 43명 중 15명의 학기말 리포트를 모아 낸 책이다. 학생들의 글은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쓴 일종의 '고백록'이다. 학생들은 이 책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온 과정과 이를 통해 느낀 한국 현대사의 발전 과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 발전에 관해 수강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수강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은 왜 바뀌지 않았는지를 제출하라"는 과제를 냈다고 한다.

학생들의 리포트라는 점이 이 책의 한계일 수도 있다. 한 학생은 기자에게 "생각이 다르면서도 학점 때문에 교수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쓴 학생도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실제로 책 출간 과정에서 자신의 리포트를 책에 싣는 것을 끝내 거부한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김근홍, 박정헌, 이재익, 정혜진 학생은 저자들을 대표해 쓴 머리말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쿨' 하지 않은 기록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또 우리의 역사를 더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하고자 함"이라며 "우리는 지난 한 학기의 수업과 출판 과정을 통해 한국의 발전 과정을 직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날아갈 것 같아요." 전주원이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확정 지은 뒤 세리머니로 림 그물을 자르고 있다.
▼"내 딸, 이 복덩이야." 전주원이 MVP를 수상한 뒤 딸 수빈 양의 볼에 입맞춤하고 있다.

동아DB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었다"

챔피언전 두 번째 MVP 한국 최고의 포인트 가드 전주원

MVP가 호명됐다.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백전노장 전주원(38 · 안산 신한은행)이었다. "난 한 것도 없는데…." 전주원이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되뇌었다. 트로피를 받은 전주원은 "다 너희들 덕분"이라며 후배들에게 큰절을 했다. 이어 동료들과의 뜨거운 포옹. 전주원은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지난 4월 6일 경기 안산시 와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THE Bank, 신한은행 2009-2010 여자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5전 3선승) 4차전. 신한은행이 삼성생명을 78 대 72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4년 연속 통합 우승의 위업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지난 시즌이 오버랩된다. 경기 중 상대 선수의 팔꿈치에 맞아 전주원의 이마가 찢어졌다. 핏물이 흘렀다. 늘 웃는 낯이었던 그도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벤치로 들어간 그는 이마에 붕대를 감고 다시 코트에 섰다. 신한은행을 승리로 이끌고 인터뷰실에 들어선 전주원에게 물었다.

"정규시즌 한 경기 안 뛴다고 우승 못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뛰나?"고. 그는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부상 축에도 못 낀다"며 웃어 넘겼다.

한국 여자농구 대모… 최고령으로 팀 우승 이끌어

하지만 올 시즌엔 '부상 축에 끼는' 부상을 했다. 지난 2월 전주원은 왼쪽 무릎 반월판 연골이 찢어졌다.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걷는 데도 통증이 있었다. 2월 18일 비밀리에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후배들에게 영향을 줄까봐 일부러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의사는 "6주 이후에야 코트에 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주원은 또다시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챔피언 결정전 출장을 강행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년이면 나도 학부형인데…. 내가 미친 것 같다"는 말을 남긴 채.

올 시즌 신한은행은 '부상 병동'이었다. 특히 주전가드 최윤아와 센터 하은주는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무릎 부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챔피언 결정전 4차전을 앞두고 전주원의 수술 사실이 보도되자 누구도 아픈 티를 낼 수 없었다. 전주원은 코트에 서는 것만으로도 동료들에게 투지를 불어넣은 셈이다. 최윤아는 "수술을 하고도 저렇게 뛰는데 내가 (무릎이) 아픈 것은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다. 앞으로 언니 같은 선수는 다시 못 나올 것"이라고 울먹이며 우승의 공을 전주원에게 돌렸다.

전주원은 몸을 내던지는 이유에 대해 "딸 수빈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운동선수 엄마를 둔 탓에 수빈이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시즌을 마친 전주원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일은 수빈이 아침식사를 챙겨주고 유치원을 보내는 일이다. '누룽지를 만들어주고, 뜨거운 밥에 김을 싸서 먹이는 행복'을 이제야 실감한다. 하지만 딸에 대한 '부채감'을 해소하는 길은 오히려 운동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은퇴까지 2년 남짓… 후배들 더 빛나게 하고 싶어요"

"나중에 수빈이가 '엄마는 나도 잘 못 챙겨줬으면서 운동까지 못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래서 출산 이후 '부상 투혼'은 전주원의 단골 '레퍼토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전주원은 2004년 임신과 함께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자 신한은행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엎치락뒤치락하다가도 최후의 5분을 남기고 급격히 무너졌다. 팀을 이끌 노련한 선수가 없는 탓이었다. 결국 신한은행은 전주원에게 SOS를 쳤다. '아무리 전주원이라도 출산 이후 옛 기량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우려의 시선도 물론 있었다.

1991년 실업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전주원은 늘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군림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국내 선수 중 올림픽 사상 최초로 트리플더블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팀에선 우승과 거리가 멀었다. 정상 문턱에서 정은순 등 스타 선수들이 즐비했던 삼성생명에 덜미를 잡혔다. 실업 10년차가 돼서야 첫 우승의 영광을 누렸지만 MVP는 언감생심. 그래서 전주원이라는 이름 앞에 붙었던 달갑지 않은 수식어는 '무관의 제왕'이었다.

그러나 2005년 복귀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4년 연속 통합 우승과 한 번의 정규리그 MVP, 두 번의 챔피언 결정전 MVP. 이 모든 것이 은퇴 번복 이후 얻은 성과다. 전주원은 "수빈이를 얻은 다음에 우승복과 상복이 터졌으니 수빈이가 복덩이인가 보다"며 웃었다.

동아DB

불혹의 나이까지 포인트 가드로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전주원. 그는 앞으로는 주연이 아닌 후배들을 빛내는 조연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1972년생인 전주원은 현재 신한은행의 선수 겸 코치. 1990년생, 18세 연하인 팀 동료 김단비에겐 전주원을 '언니'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그의 호칭은 '코치님' 또는 '선생님'이다. 전주원은 김단비를 보면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으면 너만 한 딸이 있다"고 농담을 던진다.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마흔. 스스로도 "길어 봐야 선수생활은 1년에서 2년"이라고 못 박는다. 이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력 유지. 비법은 있다. 전주원은 경기 전날 냉탕에 20분가량 몸을 담근다. "근육을 수축시켜 피로를 푸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그의 설명. 2007년 신한은행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태즈 맥윌리엄스(40)에게서 배운 '회춘(?)법'이다. 이제는 전주원뿐 아니라 강영숙(29) 등 후배들도 전주원과 함께 냉탕 속으로 '풍덩' 한다.

또 한 가지 비법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 웨이트트레이닝이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지기 싫어 더 이를 악문다"고 한다. 효과는 확실하다. 신한은행은 비(非)시즌 때 계단 오르내리기 등 체력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전주원은 언제나 상위권을 유지한다. 신한은행 임달식 감독은 "노장이 되면 강도 높은 훈련에서 열외를 시켜주기도 하지만 전주원은 스스로 알아서 훈련에 참여한다"며 흐뭇해했다.

전주원에게 마지막 목표를 물었다.

"이제는 주연이 아닌 조연이 되고 싶어요. 후배들이 더 빛나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의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 동료들에게 더 나은 슛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도움(어시스트)을 주는 것이 주 임무다. 20년간 한국 여자농구 최고의 도우미였던 전주원.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보다는 팀을 빛나게 하는' 조연을 꿈꾸고 있었다. G

글 · 전영희(스포츠동아 기자)

문화재 탐방, 이젠 자전거로 한다

문화재청 가이드북 〈자전거로 떠나는 문화재 여행〉

조영철 기자

하이킹의 계절을 맞아 문화재청은 자전거를 타고 문화재 탐방과 여행을 겸할 수 있는 가이드북 〈자전거로 떠나는 문화재 여행〉을 발간했다. 이 책은 전국 문화재 1백43곳을 21개 노선으로 나눠 자전거 이용자가 쉽고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름다운 길로 널리 알려진 전남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젊은이들이 자전거 여행을 즐기고 있다.

우리 문화유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보편화된 지 오래다. 그러나 자동차로 둘러보는 문화재 여행은 문화재를 깊숙하고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어 대충 겉모습만 보고 지나치기 쉽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면 우리 문화재를 가까이서 돌아볼 수 있고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재도 보호하고 자녀 교육과 가족 화합, 자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1석 4, 5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화재청이 만들어 배포한 〈자전거로 떠나는 문화재 여행〉은 역사적 가치와 중요도가 높은 문화재 1백43곳을 21개 노선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문화재 답사 소요시간과 거리를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노선 살펴보기'와 문화재에 대한 설명 자료도 담겨 있다. 상세지도에는 도로 등 교통정보가 소개되고, 주요 분기점에는 확대된 현지 사진에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해 누구든지 이 책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손쉽게 문화재를 찾아갈 수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이용자가 챙겨야 할 준비사항과 안전수칙, 자전거 대여·수리점 등 여행 중 필요한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이 책은 전국 시도 관광안내소와 국공립 도서관, 자전거 동호회 등에 배포됐으며,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간행물–문화재활용'으로 들어가면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음은 주요 코스 소개.

서울편 | 5백 년 조선의 '흔적' 궁궐

서울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등 조선시대 다섯 궁궐이 있다. 왕실의 사당인 종묘도 궁궐 못지않게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창덕궁과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서울의 자전거 문화재 여행은 도심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삼청동길과 율곡로의 자전거 전용차로, 창경궁로의 자전거도로(보도 병행 설치), 일방통행도로(종묘 순환), 이면도로 등을 이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동할 때 북촌길을 택하면 한옥마을 등을 경유할 수 있으나 편도 1차선 도로에 고개가 있어 난코스다.

추천 문화유산 : 광주풍납리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삼전도비

강원도편 | **신사임당과 이율곡의 '문향(文鄕)' 강릉**

강원도는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로 특히 강릉은 경포호가 바라보이는 경포대를 비롯한 관동8경, 경포8경이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허난설헌 등 조선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생가와 향교, 객사문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 강릉은 남대천을 따라 정비된 자전거도로와 경포호 순환 자전거도로 등 노선 구간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돼 있다. 지리적으로 평탄하고 구간의 표고차도 심하지 않다. 특히 백두대간과 나란히 강문교에서 시작해 안목항에 이르는 해안도로를 달리는 맛은 강릉 자전거 여행의 백미다.

추천 문화유산 : 강릉 객사의 정문 객사문과 임영관, 경포대, 2000년 한국 최고 전통가옥으로 선정된 선교장

충청도편 | **백제의 영광이 살아 있는 충남 부여**

부여는 공주와 더불어 백제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사비(부여의 옛 이름)시대는 백제문화의 전성기였을 뿐 아니라 일본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부여에는 많은 왕궁지와 유적, 왕릉이 있으며 부소산과 궁남지 등에서 발전했던 문화가 남아 있다. 또한 낙화암과 황산벌의 쓰라린 아픔도 함께 간직하고 있다. 총연장 10킬로미터의 짧은 노선이지만 제방도로와 공원을 통과하는 도로 등 다양한 도로를 체험할 수 있다.

추천 문화유산 : 부여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전라도편 | **대나무와 가로수길이 아름다운 전남 담양**

담양을 대표하는 담양10경을 알고 떠나면 도움이 된다. 가마골 용소, 추월산, 금성산성, 병풍산, 삼인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죽녹원, 용흥사 계곡, 관방제림, 일동삼승지(소쇄원, 식영정, 환벽당)가 그것이다. 또한 슬로시티로 승인된 창평면 삼지내 마을도 둘러보자. 담양의 자전거 노선은 메타세쿼이아길과 대나무 숲 죽녹원을 연계해 구축됐다. 읍내를 통과해 제방 도로와 농로를 따라가는 길이 주요 이동로다. 전 구간이 평탄하고 차량통행이 적어 초보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추천 문화유산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관방제림

경상도편 | **신라 천 년의 역사가 숨쉬는 경주**

경주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보물이다. 1995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해 수많은 문화유산이 가득하다. 경주관광단지 안에선 자전거로 첨성대, 경주월성까지 둘러볼 수 있고 이정표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경주월성에서 사천왕터 사거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며 이곳에서 선덕여왕릉까지 산길을 따라 8백 미터쯤 올라야 한다. 선덕여왕릉에서 진평왕릉, 구황리 삼층석탑까지는 농로지만 탁 트인 경관이 좋다.

추천 문화유산 : 경주노동리·노서리 고분, 경주월성, 황룡사지

제주도편 | **한국 속의 이국 체험, 서귀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왕동굴계 등 섬 전체가 자연이 빚은 예술품이다. 특히 최근엔 올레길 걷기 열풍으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올레'는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한다. 노선은 대부분 농어촌도로, 해안도로와 제주를 일주하는 일주도로로 이뤄진다. 특히 일주도로에 정비된 자전거도로는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될 만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다. 이용도로가 다양해 주변의 아기자기한 전경을 즐길 수 있다. 돌담을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지만 기어를 잘 사용하면 그리 난코스는 아니다. 노선 끝 구간의 탄산온천에서 즐기는 온천욕은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다.

추천 문화유산 : 추사 유배지, 하멜이 표류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알뜨르 비행장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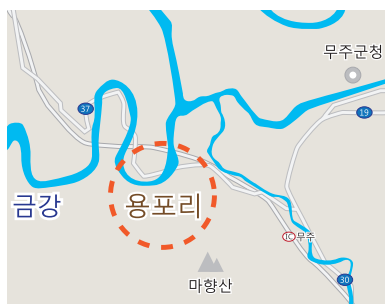
글 · 김광숙 객원기자

동아DB

동아DB

경주관광단지 안에서 자전거로 둘러볼 수 있는 첨성대(왼쪽)와 서울 도심 자전거 여행 노선에 있는 경복궁.

복사꽃 띄워 물은 아득히

4대강살리기는 우리 곁으로 강을 부르고, 우리가 강 가까이로 다가가는 자연친화적 삶을 위한 사업이다. 4대강살리기를 통해 우리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올 아름다운 우리 강산의 우리 길들, 숨은 보석 같은 4대 강변의 걷기 좋은 길들을 소개한다.

땅의 생김새가 누에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잠두마을'로 불리는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강변 마을은 천지가 복사꽃이다.

전북 무주군 금강 상류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저절로 경탄이 나오는 그런 장소를 만날 때가 일생을 통해 어쩌다 있다.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에서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까지 약 20킬로미터, 도보로 약 6시간 거리의 길이 그런 곳이다.

이런 길을 걷다 보면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절로 시인이 되고, 어린이가 되고, 신선이 되는 순간이 있다. 그때야말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임을 간파한 괴테는 자신의 문학 조수이던 에커만과 나눈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고의 것은 경탄(驚歎)이다. 인간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 하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다. 그것은 마치 거울을 처음 본 어린애가 거기에 비친 물상(物像)들이 신기해서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 하여 뒤집어보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곳에는 연둣빛으로 물드는 강이 있고, 흐르는 강물 소리가 가슴팍을 적시고 지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마을 뒤 가파른 벼랑을 쪼아 만든 벼리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다.

나가는 강변이 있다. 그 강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멈추는 곳이 바로 '비단강'이란 이름을 가진 금강 상류의 한 지역이다. 비단강이 흐르는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마을 뒤로 난 언덕길은 이리저리 휘어지는 곡선이 강과 어울려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다.

그 길을 지나 강변을 따라가다 보면 강물이 휘감아 도는 산이 보인다. 산 아래 난 길은 그 산이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벼랑을 정으로 쪼아 만든 벼리길이다. 경남 창녕의 양아리에서 남지장 가는 개비리(개벼리)길보다 더 가파른 벼랑길 아래로 새파란 강물이 유장하게 흐른다.

강변에는 버드나무가 줄지어 섰고, 행여나 헛디뎌 떨어질까 긴장감으로 한 발 한 발 걷는 바윗길 옆으로 수진달래(철쭉)가 무리지어 피어 있는 길, 이 길을 걸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가파른 벼랑에 피와 땀으로 얼룩진 길을 내면서, 그 강에서 떠나지 못하고 일생을 살다 간 질곡의 삶이 아릿하게 가슴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봉소'라고도 부르는 강 건너 봉길(鳳吉)마을은 금강 상류에 둘러싸여 있어 봉황의 집처럼 보인다는 마을이다. 마을이 너무 편안하게 보여 문득 그곳에 들어가 한 시절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만개한 벚꽃… 만 점 꽃잎 가슴을 후벼

앞서간 사람들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가 되어 벼리길을 휘돌아가고, 멀리 바위 하나가 보인다. '상사바우'라는 이 바위는 상사병에 걸린 처녀가 굿을 해도 낫지 않으면 바위 위에 올라가 몸을 던져 죽었다는 슬픈 사연을 안고 있다.

상사바우 아래로 언제 뚫었는지 모르는 굴이 하나 있고, 강물은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앞으로 잔잔하게 흐른다. 대치교를 지나 같은 부남면의 굴암리에 이르는 봄 물드는 강변을 따라가다 보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곳에 이른다.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잠두마을 건너편의 길이다. 야생 복숭아꽃과 벚꽃, 그리고 조팝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어디가 길이며, 어디가 강이고 산인지 분별할 수 없어 정신이 몽롱해지는 곳이다.

땅의 생김새가 누에의 머리같이 보인다 하여 '누에머리' 혹은 '잠두(蠶頭)'라고 부르는 마을 앞 강변은 봄이면 봄마다 야생 복사꽃으로 온통 불이 붙는다. 수십여 년간 이 나라 이 땅을 떠돌아다녔어도 복숭아 과수원이 아니면서 이렇게 강이고, 길이고, 산이고, 온통 복사꽃이 별천지처럼 펼쳐진 곳은 본 적이 없다.

그뿐인가, 길가에 심어진 벚꽃이 만개해서 '꽃 잎 하나 날려도 봄이 가는데'가 아니라 '만 점 꽃잎이 가슴을 후비고 지나가는' 이 강변에 조팝나무 꽃들과 벚꽃이 바람에 우수수 흩날리니, 이를 어쩐담. 이처럼 복사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정경을 사랑했던 당나라 시인 이백은 〈산중문답(山中問答)〉이란 절창 한 편을 남겼다.

"왜 산에 사느냐기에/ 그저 빙긋이 웃을 수밖에/ 복사꽃 띄워 물은 아득히/ 분명 여기는 별천지인 것을(問余何事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

가다가 뒤돌아보면 산은 분홍빛으로 활활 타오르고, 멀리 대전~통영 고속국도가 지나는 강에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진 세 개의 다리가 마치 '다리 박물관'처럼 놓여 있다.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이며 기다리지 못하고 가는 것은 또 무엇인지, 멀리 흐릿한 나무들이 조금 있으면 푸른 잎들로 무성할 것이다. 그 사이 어느덧 봄꽃이 지면서 가버리고 다시 일 년을 기다려야 올 봄, 그 봄이 지나가는 소리 들리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지류가 무주 구천동을 지나서 온 남대천이다.

남대천을 받아들인 금강은 더욱더 넓어진 채 충청도 금산군 부리면을 향해 흐를 것이다. 망연히 서서 강물을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 옛 당나라 시인들의 시 구절들이 스쳐 지난다.

"돌아보니 봄바람에 하나같이 꽃(回看春風一面花)"이라는 호증의 〈식성(息城)〉 시 한 구절과 "미인은 간 곳 없고 도화만이 휘날리더라(人面桃花相映紅)"는 최호의〈제도성남장(題都城南莊)〉 한 소절이 강물을 따라 흘러서 간다. G

글과 사진 · 신정일(문화사학자, 사단법인 우리땅걷기 이사장)

말 없이 通해볼까요

2010 춘천마임축제… 5월 23일부터 8일간

춘천마임축제 사무국

출연자들의 우스꽝스러운 표정 연기가 압권인 프랑스의 〈코코리코〉 공연(위쪽)과 4대 난장의 하나인 '아!水라장' 퍼포먼스.

'말 대신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마음은 통한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공감하는 점일 것이다. 5월의 봄날, 몸짓과 표정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온 세상과 마음의 교감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몸짓과 표정을 예술로 승화한 마임(Mime) 축제가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열린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춘천마임축제'는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어린이회관, 춘천인형극장 등 춘천 전역에서 열린다.

1989년 '한국마임페스티벌'로 출발한 이 축제는 1994년 일본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춘천마임축제로 명칭을 바꿔 국제적 공연예술 축제로 거듭났다. 춘천마임축제 사무국은 2002년부터 '아시아 마임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아시아 마임 예술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제 교류의 폭을 넓혀왔다.

'마임이 마음입니다'라는 슬로건, 소설가 이외수 씨가 지은 '우다마리('우리 다 함께 마임에 미치리'의 줄임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번 축제엔 'Contemporary & New Wave 그리고 Pubilc & Timely'를 주제로 이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작품을 다수 선보인다.

노래 맞춰 코미디 등 독특한 마임 희극도

고골리의 단편소설 〈외투〉를 재구성한 영국 작품, 저글링과 마술을 영상과 함께 보여주는 현대판 서커스인 핀란드 작품 〈대합실〉이 대표작. 신체 희극의 거장 파트리스 티보와 곡예 피아니스트 필립 레이냐이 만난 프랑스 작품 〈코코리코〉는 마임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포복절도할 만한 작품이다. 경술국치 1백주년, 6·25전쟁 60주년 등을 맞아 전쟁의 일상을 돌아보게 하는 극단 노뜰의 작품 〈귀환〉도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에 맞춰 레몬을 맛있게 먹는 마임코미디 〈탱큐 테주카〉(일본) 등 독특한 마임 희극도 야외공연 형식으로 펼쳐진다.

개막일과 금요일, 주말엔 축제의 대표적 행사인 4대 난장이 열린다. 물의 도시인 춘천에서의 일탈을 물폭탄 난장으로 승화시킨 '아!水라장', 예술 마니아들의 한판 굿 '발광난장',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임과 무용,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밤샘난장', 길놀이와 대동놀이를 통해 폐막을 알리는 '불꽃난장'이 그것. 이때는 일정한 무대 없이 공연자와 관객의 역할이 해체된다. G

글·유재영 기자

춘천마임축제 사무국 Tel **033-242-0571 www.mimefestival.com**

4대강살리기는 생명살리기
태화강 맑은 물의 비밀
제 50 화
남한강, 여주
글·이연수 그림·이호

휴~
흰죽지
학명: Aythya ferina
기러기목 오리과

젊은 애가 웬 한숨을 그리 쉬어?

공사하는 거 보니 심란해서 그래요.
왜?
황로
학명: Bubulcus ibis
황새목 왜가리과

태화강은 보를 헐어내서 2급수로 좋아졌다는데….

저렇게 큰 보를 지으면 물이 고여 썩지 않을까요?

이보게, 태화강은 보를 헐어내기 전에 이미 폐수처리시설을 보강하고 비점오염원을 관리해서 2급수가 됐다네.

보를 헐어낸 건 퇴적물이 쌓여 강바닥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이었어.

지금 잠실수중보 부근 수심이 옛날에는 어린애도 걸어서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았다는 거 아는가?
엥? 정말요?

폐수처리시설을 늘리고 수중보를 쌓은 덕분에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야.
아하!

저쪽도 좀 시끄럽다 했더니, 폐수처리시설 짓느라 그런 거였군요?
그렇다네.

퇴적물 안 쌓이는 가동보에다 폐수처리시설까지! 이 동네 물 완전 좋아지겠는데요?
기대된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씨가 추천한 〈꾸뻬 씨의 행복 여행〉

누구나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한 현실에서 ‘혹시 내 삶이 불행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여기에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기라도 하면 하루하루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다. 결국 ‘나는 불행한 사람’이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채운다.

2008년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오래된 미래)를 펴내 많은 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어루만져준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51) 씨는 이런 상황을 ‘행복 강박증’이라고 일컫는다. 남보다 잘살아야 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야만 하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현대인의 만성질환이라는 것.

김 씨 역시 한때 비슷한 상황에 빠질 뻔했다. 그는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촉망받는 의사였다. 그러던 중 2002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 유학의 꿈을 접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게 끝이라고 절망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김혜남 전문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은 더욱 커진다”며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갖고 꾸뻬 씨처럼 일상 속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살라”고 말했다.

그때부터였다. 방 한쪽에 마련한 앉은뱅이책상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글 쓰는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다”며 “그때 ‘행복은 이런 소소함 속에서 찾아오는 거구나. 가끔 불행과 절망이 찾아와도 이래서 살 수 있는 거구나’ 생각했다”고 말한다.

지난해 12월 그는 우연한 기회에 〈꾸뻬 씨의 행복 여행〉을 쓴 프랑스 정신과 의사 프랑수아 를로르를 만났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에 대한 강박관념이 현대인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데 뜻이 일치했다.

“이 책의 장르적 구분은 소설이지만 ‘행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명상 에세이에 가까워요. 정신과 의사 꾸뻬 씨는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노트에 하나씩 적어둬요. 그 꾸뻬 씨가 중국에서 만난 노승은 ‘불행의 원인은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라고 믿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행복은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닌데, 우린 행복하지 못한 상황에 닥치면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여기거든요.”

“행복해야 한다” 강박관념이 현대인을 불행하게 만들어

그는 우리가 살면서 간과한 모든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은 더욱 커진다고 했다.

“꾸뻬 씨의 일곱 번째 메모에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영국 런던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우정이나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해요.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즐겁고 기쁜 시간을 나눈다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부족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면 나을까’ 등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 없이 갈팡질팡하다 보면 걱정만 늘고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안데르센 동화 〈파랑새〉에서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아 애타게 헤매죠. 그러다 결국 둘은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었음을 깨닫게 돼요. 행복은 우리 곁에서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갖고 일상의 권태로움을 ‘실패’라 여기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행복을 꾸뻬 씨처럼 슬기롭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사랑'은 미루지 마세요

글과 그림 · 최영순

'사랑의 비극'이란 없다.
단지 사랑이 없는 곳에만 비극이 있다.
– 시몬 데스카

Culture

예술로 만나는 그리스 신화 그리고 인간

세계 문명전 〈그리스의 신과 인간〉

일시 5월 1일~8월 29일 화·목·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7시(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관람료 성인 1만원, 중고등학생 9천원, 초등학생 8천원, 유아 6천원, 65세 이상 5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1~3급은 동반 1인까지)
문의 02-2077-9277 www.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고대 문명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연달아 개최해 대중친화적인 '열린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세계 고대 문명전은 2008년 〈페르시아〉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파라오와 미라〉전과 〈태양의 아들, 잉카〉전으로 이어지며 가족 단위의 관람객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오는 5월 1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그리스의 신과 인간〉전도 그에 못지않은 관객몰이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고대 그리스의 미술품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인본주의 사상을 조명해보고자 기획됐다. 그리스의 신과 신화를 다룬 1부 '신, 영웅 그리고 아웃사이더'는 문명화된 그리스 사회와 대조되는 야만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를 통해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을 가늠하게 한다. 2부 '인간의 모습'에서는 균형과 비례를 중시한 그리스 조각과 도기를, 3부 '올림피아와 운동경기'에선 고대 올림피아의 성소와 운동경기, 운동선수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4부 '일상'은 도기의 그림, 장신구, 갑옷과 투구, 묘지석 등을 통해 그리스인의 삶의 여정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회는 대영박물관에서 대여한 다양한 재질의 미술품 1백36점으로 꾸며진다. 대표 전시품으로는 '원반 던지는 사람'과 '청동 제우스 상', '금제 관식', '투구와 갑옷', '헤라클레스와 네메아의 사자가 그려진 도기', '스핑크스 상', '아프로디테 상' '달리기 선수가 그려진 암포라', '공기놀이를 하는 소녀상' 등이 꼽힌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소연 학예연구사는 "그리스 초기 미술이 인간의 유형을 일반화하고 주로 지배 계급의 가치를 재현했다면, 후기 미술에는 다양한 모습의 인물이 표현돼 있다"며 "박물관에서는 이번 전시를 찾은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특별 강연회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전했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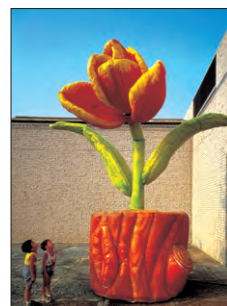
글·김지영 기자

음악사극 〈죽은 자가 들려주는 살아 있는 이야기, 몽유록〉

일시 5월 1, 2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R석 3만5천원, S석 2만5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1~3급은 동반 1인까지)
문의 02-6409-6889 www.sac.or.kr

조선시대 기이한 인물들과 설화 등을 엮은 몽유록계 소설 이야기를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보여주는 유쾌한 음악사극. 연극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음악극으로, 판소리라는 음악 장르의 서사적 특성과 만담 형식을 살려내 관객들과 따뜻하면서도 드라마틱한 교감을 나눈다. 또한 각 장면의 상황은 배우들의 대사 대신 특색 있는 전통음악과 소리로 엮어낸다.

기획전 〈젊은 모색 三十〉

일시 6월 6일까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제1, 7전시실 및 야외조각장
관람료 성인 5천원, 청소년 3천5백원, 장애인 및 보호자 무료
문의 2188-6000 www.moca.go.kr

최정화 〈슈퍼 플라워〉

1981년 서울 덕수궁미술관의 '청년작가전'으로 출발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전시회로, 매년 젊은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을 조망해왔다.

올해는 역대 〈젊은 모색전〉의 참여 작가 3백27명 가운데 시기별로 추린 대표작가들의 작품 2백여 점을 선보인다. 또한 역대 참여 작가들의 활동과 성과를 기리기 위해 오광수, 서성록, 김미경 등 전문 비평가와 미술사가의 원고를 수록한 도록도 발간했다.

제2회 노사화합 국민응원 캠페인

노사화합 응원 UCC공모전

www.nosabravo.or.kr

2010년은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 대한민국 노사화합을 응원하는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응모기간 : 4월 19일~5월 24일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주제 : 노사화합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
- 창작 응원가, 연주, 공연, 춤, 우리 기업만의 응원, 플래쉬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퍼포먼스 가능

응모양식
- 용량 15MB 이하의 avi, mpeg, wmv 파일

접수방법 : 노사문화 선진화(www.nosabravo.or.kr) 홈페이지 내 공모전 페이지를 통해 접수

심사 및 발표
- 1차 예선 : 5월 31일 (UCC응모작 심사, 16팀 선발)
- 2차 예선 : 6월 5일~6일 (오디션 심사, 10팀 선발)
- 공연 및 시상 : 6월 12일 '2010 노사화합 국민응원전' (본선 진출팀 공연, 최종 6팀 시상)

※장소는 추후 공지하며 일정은 변경 가능함

시상내역

대상(1팀) 노동부장관 표창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1팀) 노동부장관 표창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1팀) 노동부장관 표창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3팀) 각 상금 20만원

노사화합 국민응원 캠페인은 UCC공모전 외에 '노사화합 응원 한줄 달기', '노사합동 월드컵 응원계획 올리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사문화 선진화 홈페이지(www.nosabravo.or.kr)에서 확인하세요!

새만금, 위용을 드러내다
전체 구간 33km 세계서 가장 길어

새만금 방조제가 착공 20년 만인 4월 27일 준공된다.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잇는 새만금 방조제는 전체 구간이 33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복합 명품도시'로 거듭날 새만금 간척지의 면적은 서울의 3분의 2, 여의도의 1백40배 규모에 달한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새만금 방조제. 〈사진·중앙포토〉